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년 2월
석사학위논문

국내 일간지에 게재된
‘대체의학’ 관련 기사 연구

조선대학교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강 유 은

국내 일간지에 게재된
‘대체의학’ 관련 기사 연구

*A Study on Alternative Medicine Headlines
Appeared in Korean Newspapers*

2008년 2월 일

조선대학교보건대학원

대체학과

강 유 은

국내 일간지에 게재된
‘대체의학’ 관련 기사 연구

지도교수 박 상 학

이 논문을 대체의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0월 일

조선대학교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강 유 은

목 차

표 목차	ii
ABSTRACT	iii
I.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6
A. 대체의학의 정의	6
B. 헬스저널리즘과 신문	9
C. 선행연구	14
D. 선행연구와 차별성	15
III. 연구 방법	17
A. 연구 대상	17
B. 연구 방법	17
IV. 연구 결과	20
A. 대체의학 보도 현황	20
B. 형식에 따른 분석	25
C. 내용에 따른 분석	60
V. 고찰	68
VI. 결론	73
A. 결론	73
B. 연구의 제한점	76
C. 제언	76
참고문헌	78

표 목 차

<표 1> 미국대체의학연구소의 대체의학 분류	9
<표 2> 인쇄미디어 등록현황	14
<표 3> 4개 신문 기사 총 목록	20
<표 4> 4개 신문 연도별 보도 건수	23
<표 5> 기사유형에 따른 분류	24
<표 6> 내용에 따른 분류	24
<표 7> 스트레이트 기사 목록	26
<표 8> 기획기사 목록	32
<표 9> 인터뷰 기사 목록	52

ABSTRACT

A Study on Alternative Public Health Headlines Appeared in Korean Newspapers

Kang, Yu-Eun

Advisor : Park, Sang-Hag M.D. Ph. 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Chosun University

As newspapers among mass media give higher satisfaction to the public, what is dealt with in them has an important effect on the public. This is a function of the press which emphasizes specific issues and provokes debates from the public. To identify how newspapers from which the public obtain information on health reports the alternative medicine,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questions:

- 1) How does Korean newspapers define the alternative medicine ?
- 2) What contents do the articles on alternative medicine deal with ?
- 3) With what attitude do the Korean newspapers report on alternative medicine ?

This study analyses the articles on complementary alternative and integrated medicine through home-pages of the four newspapers of

Kyunghyang, Donga, Chosun and Hankyoreh from January 1, 2001 to October 30, 2007.

It deals with a total of 100 articles as follows: 37 articles of Kyunghyang Newspaper, 18 of Dongailbo, 25 of Chosunilbo, and 20 of Hankyoreh. They ar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of articles and each analysis focuses on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As a result, a common thing from the four newspapers is that the amount of articles on complementary, alternative and integrated medicine is not satisfying. It indicates that the alternative medicine in our society is not a main subject for discussion. It is considered as a minor medicine to which people do not trust it and ar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it as a topic.

Our newspapers once reported that the alternative medicine is an integrated medicine that can be used under the direction by doctors or medical experts in scientifically demonstrated fields. In particular, Dongailbo dealt with it very actively.

The articles on the alternative medicine introduced only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report it within very limited range. Except Dongailbo, the three newspapers provided space only to the alternative medicine experts rather than reporters of the newspapers or introduced only foreign cases, not to show their own viewpoints on it.

The reporting attitude by Korean newspapers on alternative medicine is adhere to critical attitude in neutral position.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현대인들은 영양불균형,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 생활습관 병에 시달리고 있어 이들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강해지고 새롭게 생겨나는 바이러스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해법을 현대의학과 함께 비제도권 의학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도 높아지고 있다.

비제도권 의학, 즉 대체의료 또는 요법(alternative medicine & therapy)은 현대의 과학적인 의학의 수준으로 효능 및 부작용과 독성 등이 검증되어 있는 현대의학인 정통적 의료(orthodox medicine)에 반한 비정통적 의료(non-orthodox medicine)로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정규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모든 치료와 방법을 말한다.

대체요법은 대체(alternative) 의료 또는 보완(complementary)의료, 비전통(unconventional)의료, 증명되지 않은(unproven)의료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광범위한 치료방법과 신념들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한 사회에서 개인이 질병을 인식하고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보건관리 양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의료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김정선, 2000). 또 대체의학을 일반적으로 제도권 밖의 의학, 즉 면허증이 없는 민간 치료의학을 말하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는 우리 의학인 한의학과 인도의학을 포함하기도 한다(이종문, 2004).

대체요법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질병의 예방 또는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일반인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생활 속에서 구전되어 오는데다 기대감과 함께 현대의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작용한 때문이다. 이렇듯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의 시각 또한 긍정적이지 못해 이를 둘러싼 의료인과 대중사이의 의사소통이 단절돼왔다(곽

순애, 2001).

건강이 개인이나 사회에 관리의 문제가 되면서 우리 삶의 화두가 되었고, 이를 둘러싼 담론의 생산은 언론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인터넷 등 거의 모든 매체가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주요 일간지들은 건강 헬스면을 늘리거나 섹션화했다. 매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전도사 역을 자임하고 나섰는데, TV는 게임이나 오락, 퀴즈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매체의 대중교육 기능에 오락기능을 겸한 ‘헬스에듀테인먼트’를 개척해 건강정보제공과 재미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의학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한 면이 있다. 무엇보다 매체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낳았다. 이 같은 흐름을 타고 정통적인 건강관리 외에 다른 요구, 즉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매체를 통해 전달된 건강의학 정보들이 일반인들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고(안윤옥, 1999), 개인의 건강에 대한 행위 등이 대중매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박희호, 1999).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대체의학을 다룬다는 것은 수용자의 입장에서 대체의학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영애, 2005).

1998년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에서 ‘건강 커뮤니케이션’은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공중에게 알리고 공중의제 속에 건강에 관한 쟁점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이며,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공중에게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유통시킴으로써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강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은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학문영역이다. 가장 먼저 태동한 미국에서도 그 역사는 불과 30년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매스미디어 혹은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건강 관련 정보의 전달에 초점을 맞춰 환자와 의사간 커뮤니케이션 혹은 개인의 보건 행위 등을 포함하는 개인적 수준의 연구에서부터 넓게는 한 사회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수준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다.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탐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이다(이병관,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약 3분의 2 정도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평소 건강에 관한 지식을 얻고 있어(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의료 건강관련 기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인들이 자신의 말을 확실성을 갖고 얘기할 때 “신문에도 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 대중매체 가운데 신문은 일반인들에게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 신문이 다루는 내용은 대중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특정이슈를 강조함으로써 공중의 논의를 촉발하는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이며, 미디어 의제는 공중의제에 영향을 주고 공중의제는 다시 정책 의제에 영향을 준다.

즉 미디어가 어떤 이슈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 이슈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신문은 인쇄매체로서 신문 기사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사회적 여론을 유도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Wright, 1975).

오늘날 건강은 모든 인류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권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일이 미리 사회비용을 줄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관리의 관건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책임과 의무를 밝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건강한 삶에 대한 욕망과 더불어 정보에 대한 욕구 또한 커지고 있어 이를 다루는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의료에 대한 언론의 내용이 기존 현대의학 일변도에서 대체의학 쪽으로도 비중을 실어주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대체의학이 언론의 관심 주제가 되는 현상은 현대의학의 한계라기보다는 의학과 건강 개념의 확대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주요 매스미디어인 신문에서 대체의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경향과 태도를 살피는 일과 아울러 언론이 대체의학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대체의학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

화되도록 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B.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일반 국민들이 건강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주요 경로의 하나인 우리나라 일간신문 중 4개 신문의 대체의학에 관한 기사를 내용분석 했다.

일간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대체의학 기사의 의제가 어떤 특성과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분석단위가 된 각각의 대체의학 관련 기사 내용이 제시하고 있는 의제를 찾아내 분석유목에 따라 분류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용분석의 단계는 연구문제를 구성한 후, 연구대상이 되는 모집단에 대해 정의하고, 표본과 분석단위를 선정해, 분석유목을 구성한 후, 자료를 체계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 내용을 코딩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대체의학에 관한 일반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현재 일간신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강 지면은 대부분 현대의학에 비중을 두고 있어 현대의학 이후의 의학에 관한 일반인의 정보욕구가 높아 그 중에서도 대체의학과 관련한 기사를 분석했다.

대중매체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가치관과 역할을 제시해야 할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신문에서 대체의학 관련기사의 보도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주요 신문들이 대체의학 관련기사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선택되는 의제는 어떤 것들이며, 각 의제는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다고 본다.

- 1) 한국 신문은 대체의학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2) 대체의학에 관한 기사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

3) 대체의학에 대한 한국 신문의 보도태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A. 대체의학의 정의

현대의학은 산업혁명이후 현미경의 발명, X선의 발견 등 의료보조기술과 세균학 분야의 도저한 발전에 힘입어 20세기에 꽃피웠다. 전자현미경·내시경·파이버스코프에 의한 진단, 컴퓨터에 의한 판정등 현대의학의 진화는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이런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암 고혈압 심장병 등의 본체를 규명하는 일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속수무책인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현대의학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최근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의학은 사실상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지금도 전승되는 의료전통이 그것을 말해준다.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때는 주류를 이루었던 의학이 자연요법적인 대체의학이다. 대체의학이란 한마디로 인간의 자연 치유력의 회복을 의미한다. 인간의 온갖 질병과 고통을 자연치유력에 맞추어 조율하고 복원시키는 의학이다. 인체의 면역기능과 회복능력을 증강시켜 주는 것에 맞춰 환자의 병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한 치료를 행한다.

서구에서는 현대의학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의학을 대체의학이라고 정의해 한의학도 대체의학의 범주에 속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제도권의학에 편입됐기 때문에 한의학을 정통의학으로 규정해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한 기타를 대체의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란 용어는 기존 주류 현대의학의 대안이거나 대체하는 의학이라는 의미인데 보완의학(Complementary) 또는 비제도권 의학(Unorthodox)등의 용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보다 적극적 의미의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대체의학은 미국국립보건원이 1992년 ‘대체의학연구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후 여러 대체의학적 치료법들을 검증해왔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허훈, 2003).

미국국립보건원 대체의학연구소의 대체의학 분류

① 심신의학(Mind-Body Medicine)

Mind -Body Methods와 Mind -Body System. 심신통제, 정신-신체 상관 치료라고도 불리는 방법으로 정신과 육체가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전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즉 정신치료, 바이오피드백, 예술치료(음악, 미술), 이완요법, 최면, 요가, 명상, 단전호흡, 유도된 심상, 무용치료, 기도와 영적 치유 등이 포함된다.

② 대체의학 체계

침구학 및 동양의학과 각국의 전통의학(Traditional Indigenous System) 그리고 비주류 서구의학으로 분류한다.

전통 중국의학,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의학, 미국 원주민의학, 고대 아랍의학, 아프리카 전통적 치료법, 중남미의학, 동종의학, 침술 등이 여기 속한다. 그러나 침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인 한의학의 분야이다.

③ 약리 및 생리적 처치 (Pharmacological & Biological Treatments)

현대의 약물과 같은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인 화학적 자연적 요소들을 포함하며, 다른 대체치료와는 달리 침습적이며 강력한 신체적 영향력을 미친다. 심혈관질환이나 암 치료, 만성통증 등에 주요하게 사용되지만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적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 그 질과 지속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④ 식물 또는 생약요법(Herbal Medicine)

단일 약초요법에 마늘, 인삼, 고추열매, 은행, 녹차, 최음제, 산사나무, 종려나무, 앵초, 동규자, 겨우살이, 복합 약초요법에 식이요법, 채식요법, 금식, 고섬

유소요법 등이 있다.

⑤ 식이와 영양요법(Diet & Nutrition Therapy)

물, 술, 과일, 곡식류, 동물, 생선어패류, 봉독, 장수식, 고용량 비타민 영양 보조제 등을 말하며,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소화기내의 해로운 세균들을 죽이고 신체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시켜준다는 생식요법을 포함한다.

⑥ 손 치료 요법(Manual Healing Method)

척추교정의학과 마사지등 신체적 요법과 대체의학적 물리치료로 나뉜다. 신체적 요법에 정골 요법, 두개골 천골요법, 신체운동 요법, 반사학, 알렉산더 기법, 튜나, 마사지, 지압, 롤핑이 있다. 대체의학적 물리요법에는 수(水)치료법, 투열요법, 광선과 색에 의한 치료법, 결장세척법 등이 있다.

⑦ 기(氣) 치료(Bio electromagnetic Therapies)

Therapeutic Touch, Healing Science, Healing Touch, Natural Healing, Reiki, External Qi Gong이 있다. 생전자기장요법(Bio-electromagnetic therapies)은 신체의 각종 에너지 작용이 나뉘대로 자기장을 방출하며 생체가 전기 자기장과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분야로, 외부의 전자기자기장 영향으로 생기는 인체의 전류와 자기장 변화가 신체적 혹은 행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골 치유, 신경자극, 창상치유, 골 관절염 치료, 전기 침, 조직재생, 면역반응증강, 신경내분비계 등의 영역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표 1> 미국 대체의학연구소의 대체의학 분류

분류	원리	예
대체의학체계	전통의학, 비주류 서구의학	한의학, 아유르베다, 동종요법
심신의학	마음을 이용한 치료	정신치료, 바이오피드백, 예술치료(음악, 미술)
약리 및 생리적 치료	약물요법	암, 심혈관치료에 사용
식물 또는 생약요법	약초요법	인삼, 은행잎, 겨우살이
식이와 영양요법	생식요법	비타민, 생식요법
손 치료 요법	손을 이용한 치료	카이로프랙틱, 마사지
기(氣) 치료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	경피신경자극

B. 헬스저널리즘과 신문

1. 헬스저널리즘

우리 사회에서 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외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항목으로 떠오른 지 오래 되었다. 암이나 당뇨, 비만 등 현대병은 대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가 한 인간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우선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키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다.

이런 우리 사회의 건강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생활수준의 향상, 국가의 건강커뮤니케이션, 언론의 헬스저널리즘에 힘입은 것이다. 헬스·요가·등산 등 사회스포츠의 증가, 식이요법, 건강보조식품, 자연건강식, 유기농산물 등 관련 업종도 시장이 커져 ‘건강산업’으로 분류한다. 21세기 유망 직종으로 건강관리

사, 미용 등 건강뷰티 관련 업종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건강에 대한 관심사를 공중에게 알리고 공중의제 속에 건강에 관한 쟁점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주요 전략의 하나이며,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공중에게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유통시킴으로써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며 헬스저널리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정보를 주로 미디어에서 얻고 있으며, 의학 관련 기사를 보는 동기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정보를 얻기 위해”, “새로운 정보 취득”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문의 의학 건강 관련 기사를 읽고 나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질병은 예방할 수 있다’ ‘나도 병에 걸릴 수 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건강진단을 받아야겠다’는 항목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한국언론재단, 2001).

언론은 일반 대중들에게 중요한 건강 정보원이며, 이렇게 취득한 건강관련 정보는 대중의 의료적 행위에 건전하고 유익한 영향을 끼쳐왔다. 언론은 건강 정보 욕구가 높은 수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함으로써 질병예방 또는 조기검진 유도, 의학상식을 높이기, 잘못 알고 있는 의료지식 바로잡기 등 건강사회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매스미디어의 건강의료관련 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나치게 치료 중심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고,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과장되고 왜곡된 보도와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박재영, 1998).

정확성 면에서도 보도가 예방이나 조기진단보다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진단이나 치료에 치중해 있고, 간접적으로 병원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정보원이 대학교수나 종합병원 전문의에 편중되었다(조홍준, 1999).

또 심층기사가 적어 정보로서 미약하고, 잘못된 정보의 보도, 지나친 과장 확대 보도,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신약 소개, 의사나 연구기관의 공명심에 의한 발표, 선정적이고 저급한 기사 소개, 왜곡된 정보, 상업적 홍보적 뉴스 생산, 미신적 내용과 속설을 흥미위주로 보도, 의학전문 기자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우룡, 2001).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워싱턴 포스트 의료담당기자 트래포드

(Trafford)는 좋은 건강의료 기사를 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일명 PPPM 기준이다. 개인의 일화적 이야기를 기사 속에 넣어야 하고(Personal Standard), 기사내용의 사회적·정치적 과장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Power Standard),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어야 하고(Passion Standard),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Money Standard)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래포드는 이 중에서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이 한 기사 속에 들어 있어야 좋은 의료기사가 된다고 주장했다(강남준에서 재인용, 1998).

이 같은 의료관련 보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학자 겸 칼럼니스트인 브라이언트 스탠퍼드대 교수는 AJR(American Journalism Review)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단정적 보도를 지양한다. 둘째 뉴스 가치를 연구 성과의 중요성에 비해 판단해야 한다. 셋째 의학상의 연구 성과를 너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의료와 건강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의료는 발병한 질환을 치료하는 것인데 반해 보건은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개인이 유념해야 할 건강문제를 의료문제와 뒤섞어 보도할 경우 많은 사람은 건강문제까지 의료부문에 의존하는 왜곡된 인식을 갖기 쉽다. 다섯째 건강이나 의학 의료 관련 연구 성과가 너무 고무적이거나 너무 센세이셔널한 경우에는 일단 회의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상식적인 판단만으로 충분할 때가 많다(홍수원에서 재인용, 2000).

헬스저널리즘은 우리 사회의 폭발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건강의 체를 만들어가고 이슈화하는 저널리즘의 의제설정 기능과 매스미디어의 주요한 기능인 환경감시, 사회조직간의 상호연결, 사회적 유산의 전승(한국언론정보학회, 2000)을 수행해왔다. 건강의료 기사의 선정성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이점은 건강의료 기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널리즘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저널리즘의 한계일 것이다.

헬스저널리즘은 일반 대중의 건강의료에 관한 정보욕구를 해소하는 것 외에, 국민의 건강평등권 보장의 전제인 국가 보건복지 정책, 건강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사회를 실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신문의 의제설정 기능

인간의 본능에 정보욕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정보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해왔다. 어느 시대이건 정보 취득에 늦거나 개인이든 사회든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면, 모든 것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 삶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자, 인류의 역사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이다. 또한 인류의 진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발달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인 정보를 누가 독점하느냐에 따라 독재사회와 민주사회로 갈리고, 정보평등권을 쟁취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대에 관계없이 정보해득력은 인간의 능력을 결정짓는 준거가 되었다. 그 시대 주류 매체가 무엇이나에 따라 중세에는 문자해득력이, 근대에는 미디어 해득력이, 지식정보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정보해득력이 사회를 살아가는 중대한 핵심요소이다. 특히 대중사회인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쏟아내는 각종 정보와 함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시대에 뒤쳐질 것은 명백한 일이다.

매스컴의 효과이론에 의제설정이론이 있다. 맥콤과 쇼우(M. E. McComb & G. E. Show)가 1972년 체계화한 이론으로 언론이 특정 쟁점을 선택하여 강조함으로써 수용자들이 이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이론이다(차배근, 1999). 즉 수용자들이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할 것인지를 언론이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언론 수용자들이 언론을 통해 공공 이슈와 다른 사물들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얼마나 크게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그 이슈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언론이 언제 무엇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쟁점이 결정된다. 언론의 정보 선택과 배열이 수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 강조하는 이슈나 주제와 수용자들이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이슈나 주제가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도 언론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보도하면 수용자들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중요한 주제도 언론이 작게 보도하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의제는 언론이나 공중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이슈나 주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의 의제는 ‘교육문제’ ‘물가불안’ ‘자살문제’에서부

터 ‘대통령 선거’ 등 큰 담론을 형성하거나 동네문제에 이르기까지 이슈화할 수 있는 당면한 주제를 가리킨다.

특히 여러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신문은 의제설정 기능이 탁월한 매체이자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인류의 역사가 문자시대로 접어들고 종이와 보편화되면서 신문은 하나의 매체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신문이 오랜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보에 대한 인류의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정보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언론학자 알철(Altschul, 1984)은 “미디어는 메시지다”고 말한 맥루헌(Marshall McLuhan)의 정의를 인용하면서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디어는 경제이자 그 자체가 매우 잘 팔리는 상품이다”고 단언, 일찍부터 정보는 수익성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었다(한종범, 2006). 정보의 교환 및 매매는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로 뿌리내리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은 정보시장을 형성한 최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뉴미디어의 각축장이라고 할 만큼 양과 질적인 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일변도의 확장 변화를 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가 짧은 시간 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첨단 미디어 환경을 형성해 온 특성을 지닌다. 특히 신문과 잡지 같은 인쇄미디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뉴미디어의 개발과 보급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미국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종합 일간지들은 건강면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관련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는 건강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주목도가 점차 증대함에 따라 좀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에는 아예 헬스섹션을 도입했다.

조선일보는 2000년 3월, 동아일보는 2002년1월, 중앙일보가 2002년 3월 헬스섹션을 도입해 일반 대중과 건강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있다. 일간신문이 헬스섹션을 통해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제는 건강정보이며, 새로운 건강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운동 먹거리 미용 등에 대한 독자들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신문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의료정보 중에서는 암, 장기

이식, 의학/한의학, 질병, 뇌졸중,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순으로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치매, 에이즈, 금연/흡연, 의료제도, 시사이슈 등의 순위가 낮아 앞으로 건강을 둘러싼 사회제도와 이슈에 관심을 갖고 공중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의제를 적극 개발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헬스저널리즘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 동시에 헬스섹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정규숙, 2003).

<표2> 인쇄 미디어 등록현황(2005. 03. 31)

구분	일간신문	기타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년2회
2000년도 계	119	368	2,166	2,468	389	696	226
2005년도 계	136	407	2,421	2,570	388	802	266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제공)

C. 선행연구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는 단순하게 평균수명의 연장에 있지 않다. 살아있는 동안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아름답고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들은 이 같은 현대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앞다퉈 ‘건강’관련 정보를 확대하거나, 헬스섹션을 따로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일보는 2000년 3월부터 ‘Health/건강’, 동아일보는 2002년 1월부터 ‘Health’, 중앙일보는 2002년 3월부터 ‘건강’이라는 이름의 본지와 독립된 섹션을 주 1회 발행해왔다. 먼저 국내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의학’관련 국내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규숙의 연구는 2002년 한 해 동안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서 발간한 헬스섹션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사의 의제를 분석했다. 일간신문 헬스섹션의 기사로 선택되는 의제는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로 그 중 건강정보가 의료정보에 비해

4.7배 가까이 비중 있게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 의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의제는 ‘몸에 좋은 음식’, ‘운동’ ‘미용’ ‘생활환경’ ‘비만/ 다이어트’ ‘보완대체의학’ 순으로 파악돼, ‘보완대체의학’이 건강정보로서 큰 비중을 갖지 못하고 ‘제3의학’으로서 소개기사 또는 구색 맞추기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은은 1994년 주요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를 내용분석 했다. 이 연구에서 신문이 전달하는 건강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서부터 전문분야까지 다양하지만, 질병의 예방 차원보다는 치료 중심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서 김지미는 1986년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 내용분석을 통해 건강담론을 조성하는 신문의 보건 교육적 기능을 평가했다. 신문의 건강관련 기사가 건강에 미치는 역할을 연구한 결과 신문이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여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이는 다른 매체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체의학에 관한 신문 분석에는 2005년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의 김영애의 연구가 있다. 1997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국내 9개 일간지에 실린 대체의학 관련 기사 603건의 보도경향을 분석했다. 자료수집은 한국언론재단의 KINDS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단어 검색을 대체의학으로 하되, 전통의학과 민간의학을 동의어로 인정해 기사를 추출했다. 이 연구는 보도량, 작성자, 보도면, 보도태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보도량에서는 국민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작성자는 신문사 소속 기자 45.6%, 의사 16.7%, 대체의학 전문가 7.3%, 한의사 3.3%, 의학전문기자 1.5%로 나타났다. 보도태도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기사가 94.9%, 부정적 기사를 5.1%로 분석했다.

D. 선행연구와 차별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 조사대상을 선별하였다. 선행연구들이

대중의 보완치료법에 대한 인식과 이용양상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용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중매체가 국민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보도형태와 보도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김영애는 1997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9개 일간지를 한국언론재단의 KINDS를 통해 ‘전통의학과 민간의학을 동의어로 인정한 대체의학으로 추출해 조사대상인 신문의 기사가 대체의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전 영역에 걸쳐으로써 식품, 의료기기, 행사소개, 침, 요가, 단학선원 등 운동요법까지 포함했다. 따라서 한국의 신문이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긍정적 94.9%, 부정적 5.1%로 분석한 것은 ‘대체요법’위주의 보도경향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대체의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이 ‘대체의학의 본령’ 또는 ‘대체의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언론의 대체의학의 정의’에 대하여 질적,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신문의 기사를 꼼꼼히 내용 분석해 대체의학에 대한 보도태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손질, 전승의학과와의 관계 등 범위 설정, 외국요법들에 의한 대체의료 시장의 선점 문제, 대체의료인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와 차등되고 보다 합리적인 점은 신문의 보도태도를 내용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토대로 대체의학과 언론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세우고 언론의 통합적 정보제공의 기초 자료로 사용토록 하였다.

Ⅲ.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전국지에 게재된 ‘보완대체·통합의학’ 기사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고, 표집단위는 일자별 신문이다.

표집대상 일간지로는 동아·조선일보와 이들 2개 신문들과는 다른 편집방향을 보이는 경향·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이들 4개 신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대체·통합의학’으로만 검색된 기사를 내용분석 했다. ‘대체의학의 정의’와 관련한, 신문이 규정하는 ‘대체의학의 범위’를 고찰하기 위한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 동의어확장이나 인접도 검색을 하지 않았다. 대중매체(신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체의학을 검색함으로써 언론이 규정하는 대체의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파악하는 것도 내용분석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 동안 ‘보완·대체·통합의학’관련 기사는 경향신문 37건, 동아일보 18건, 조선일보 25건, 한겨레신문 20건으로 조사돼 총100 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동아·조선일보는 발행부수와 독자 수에서 우리나라 신문시장의 70%를 점유해 한국 신문의 의제를 만들고 리드한다는 점에서 선택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열독성이 높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삼은 이유는 ‘한국대체의학회’가 1997년 1월 창립하는 등 90년대에 움직임이 보인다, 2000년대 들어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B.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나, 주로 질적 분석방법의 분석 단위에 따른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내용 기록에 대한 분석이다.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는 책이나 잡지, 웹사이트, 시, 신문, 노래, 그림, 연

설문, 전자우편, 법률 등 모든 문건들이 포함된다(Earl R.Babbie, 2007).

내용분석의 대상 내용은 누가 그러한 의사내용을 어떤 목적에서 전달했을까 하는 정보전달 제공자 측의 의도에 관한 궁극증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박지동, 1999), “What is said in the message?”라는 내용자체 뿐만 아니라 그것이 “How it is said”라는 문제에 관련된 메시지 기호 및 처리방법도 분석하게 된다(차배근, 1996).

1. 양적 분석

먼저 각 신문들이 보도한 기사의 총량을 파악한 후 이들 기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분하였다. 스트레이트 기사, 기획연재, 인터뷰로 나눠 보완대체의학을 다룬 기사가 어떤 유형에 담겼는지 분석했다. 각 기사 유형의 빈도수를 중심으로 이들 4개 신문이 ‘보완대체 의학’을 주로 어떤 내용을 얼마나 다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각 기사들의 글자 수와 논조를 중심으로 단순 기사인지 정보제공을 위한 기사인지 홍보성 기사인지 살펴보았다.

2. 분석틀

양적 분석방법이 갖고 있는 제한된 분석력을 보완하고 보도된 내용을 깊이 있게 고찰하기 위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백선기의 ‘한국 신문보도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 방법을 원용하였다.

a. 스트레이트 기사

스트레이트 기사는 기사를 제목 부제 사건의 과정과 개요를 기술하는 순수 기사, 기자의 멘트 등 유목으로 분류하고, 각 유목에 나타나 있는 의미들을 통합적 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목적에 찾아내려 했다.

b. 기획 기사

특집 기사와 모든 기획기사, 용어해설을 중심으로 그것이 실린 의미를 종합

적으로 파악하려 했다. 대체의학에 대한 심층보도와 심층보도를 하는 가운데 신문사 나름의 강조점들이 부각된다.

c. 인터뷰

대체학과 관련한 비중 있는 인물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음으로써 일반 독자로 하여금 대체의학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대상과 내용을 분석대상에 포함했다.

IV. 연구 결과

A. ‘보완대체의학’ 보도 현황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4개의 신문에 보도된 ‘보완·대체·통합의학’으로 검색된 관련 기사는 총 100건으로 2007년 17건, 2006년 15건, 2005년 45건, 2004년 38건, 2003년 9건, 2002년 10건, 2001년 4건 이었다. 이 기간 동안 많이 보도한 신문 순으로는 경향신문이 37건, 조선일보 25건, 한겨레신문 20건, 동아일보 18건이다. 동아·조선일보는 헬스섹션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헬스섹션 중 ‘보완대체통합의학’ 관련기사의 보도량에서 볼 때, 현대의학에 지면이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4개 신문 보완대체의학 기사 총 목록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1	버섯추출물“AHCC 인플루엔자 예방효과 (07.02.05)	건강식품569개중 의학적 약효인정 88개뿐 (07.08.02)	전남 보완대체의학 거점’ 조성 탄력 (07.08.14)	‘보완통합의학’권위자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장 (07.10.23)
2	황종국부장관사 인터뷰 (06.03.13)	버섯추출물“AHCC 인플루엔자 예방효과(07.02.05)	화순 라이프클리닉 소개 (07.03.21)	만다라미술치료 선구자 수전 핀치 (07.05.25)
3	보완대체의학을 찾아서-색갈요법 (05.06.27)	서울대의대에 첫 한의학 관련 강의 개설 (06.08.31)	군산의료원 예술치료 (07.07.30)	암, 보완통합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 (07.03.12)
4	보완대체의학을 찾아서-오감요법 3 (05.06.19)	한일합동 미술치료 학술대회(06.04.17)	올리브추출액 면역력 강화효과 (07.04.18)	전상일의 건강이야기(07.01.15)
5	보완대체의학을 찾아서 -오감요법 2 (05.06.13)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들 명상수련 (06.02.12)	노인병원 가이드 (07. 04.04)	건강식품•보완요법 27%만 “효과있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주장

				(05.05.10)
6	오감요법1(05.05.30)	봉침 해독 음악치료 (05.11.15)	전남도보완대체의학 박차 (07.03.27)	보완통합의학 현황4 (05.11.17)
7	킬레이션 해독요법 (05.05.23)	공부의 적' 가려움 잡아주세요 아토피피부염 (05.11.16)	암, '보완대체요법' 이대로 좋은가 치료중단, 상황버섯만 복용한 환자 . . . 그 후 (07.03.21)	보완통합의학 현황3 (05.11.10)
8	마크플라워요법2 (05.05.16)	제3의술,대체의학을 해부한다. -만성질환도 고친다? (05.11.08)	값비싼 건강식품은 피하라. (07.03.21)	보완통합의학 현황2 (05.11.03)
9	마크플라워요법1 (05.05.09)	제3의술,대체의학을 해부한다. -암의 대체의학 (05.11.01)	약차 끊이는 법(06.09.28)	보완통합의학 현황1 (05.10.27)
10	세포대사요법2 (05.05.09)	제3의술,대체의학을 해부한다. -대안이나 상술이냐(05.10.25)	서울대의대, 한의학 대체의학관련강좌 (06.08.31)	요가, 임신부에 좋아(05.05.22)
11	세포대사요법1 (05.04.25)	대체의학 열풍 (05.10.23)	비타민C로 AI극복 서울대 의대 이왕재 교수(05. 11.16)	음악 미술치료 (05.03.30)
12	비타민 미네랄요법 (05.04.18)	건강식품 대체요법 대상 대한의사협회 효능발표 (05.05.10)	자기 암과 싸우는 의사들(05.11.14)	오홍근 저, 자연치료의학 출간 (04.10.23)
13	8일 단식법(05.04.11)	무안기업도시 내 대체의학타운 (05.07.29)	무안기업도시 내 대체의학타운. (05.07.11)	통합의학 책 잇따라(04.09.15)
14	단식요법5(05.04.04)	건강기능식품 치료효과 논란 (05.07.29)	“보완요법 건강식품 효과 불투명” 과학적 근거 있다. (05.05.11)	전세일 저, 보완대체의학 (04.10.06)
15	단식요법4(05.03.27)	보완대체요법 上(02.11.04)	비방에 속지 말고 의사를 믿자. (05.02.02)	원광대 대체의학대학원 사랑 나눔 행사 (04.07.29)

16	단식요법3(05.03.20)	보완대체요법 下(02.10.28)	WHO 전통의학 자문관 최승훈박사 (04.08.30)	이성재 저, 유럽의 자연의학 (03.01.15)
17	단식요법2(05.03.13)	동종요법 자연치유력 키워 (02.03.25)	“알고 치료합시다” 책 출간(03.11.05)	동종요법 방송예고 (02.03.09)
18	단식요법1(05.03.07)	침술 등 대체의학 美대중들에게 인기 (01.08.22)	신경림 이대간호학과 교수 쑥 뜸 美서 연구비 받아 (03.11.03)	방송예고- 침술, 신비인가 과학인가 (01.08.25)
19	영양요법(05.02.22)		암 이렇게 이긴다 -대체의학의 두 얼굴 (03.06.18)	전세일 인터뷰 (07.04.05)
29	납 수은킬레이션 치료법(05.02.15)		동종요법 방영 (02.03.07)	무안에 대체의학단지 (05.07.09)
21	물 치료법(05.02.01)		장현갑 심신의학 선구자(07.05.22)	
22	수치료법(05.01.25)		미국, 멕시코 대체의학현장취재기 (02.01.10)	
23	동종치료(04.11.08)		미국, 멕시코 대체의학 현장취재기(02.01.03)	
24	동종약물(04.12.28)		영산대 정혜경 교수 기 (01.07.09)	
25	동종요법(04.12.21)		영양보조요법 (01.02.01)	
26	마사지요법(04.12.14)			
27	근운동 응용요법 (04.12.07)			
28	생체전자기 요법 (04.11.30)			
29	아유르베다(04.11.23)			
30	아로마향기 (04.11.16)			
31	심상요법(04.11.09)			

32	명상요법2(04.11.02)			
33	명상요법1(04.10.26)			
34	심리상태파악이 중요 (04.10.19)			
35	명상건강학(04.10.12)			
36	자연치료법 병행(04.10.05)			
37	성인병(04.09.21)			

4개 신문의 연도별 보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4개 신문 연도별 보도 건수

연도 \ 신문	동아	조선	경향	한겨레
2007	2	9		4
2006	3	2	2	1
2005	9	5	21	8
2004		1	14	4
2003		3		1
2002	3	3		1
2001	1	2		1
총계	18	25	37	20

1. 기사 유형에 따른 분류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4개의 신문에 보도된 ‘보완대체 통합의학’ 기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경향신문이 스트레이트 기사가 1건, 기획기사 35건, 인터뷰 기사 1건이었다. 동아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 9건, 기획기

사 9건, 인터뷰 기사 0건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기사 12건, 기획 기사 8건, 인터뷰 기사 5건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신문은 스트레이트 기사 11건, 기획 기사 6건, 인터뷰 3건으로 나타났다.

<표 5> 4개 신문 기사유형에 따른 분류

유형 \ 신문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스트레이트	1	9	12	11
기획	35	9	8	6
인터뷰	1		5	3
총계	37	18	25	20

2. 기사 내용에 따른 분류

4개 신문의 기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동아일보는 정보제공 기사가 12건, 단순기사 2건, 홍보성 소개 기사 3건이다. 조선일보는 정보제공 13건, 단순 기사 6건, 홍보성 소개기사 6건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는 정보제공 32건, 단순 기사 6건, 홍보성 기사 4건이다. 한겨레신문은 정보제공 기사 9건, 단순기사 4건, 홍보성 소개기사 4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단순기사란 ‘심포지엄 개최’ 또는 ‘협회 창립’과 같은 기사를 단순기사로 분류했으며, 홍보소개 기사는 ‘새 책 안내’와 같은 기사이다.

<표 6> 4개 신문 내용에 따른 분류

유형 \ 신문	경향	조선	동아	한겨레
정보제공	36	13	12	11
단순기사		6	2	2
홍보성	1	6	3	7
총계	37	25	18	20

B. 형식에 따른 분석

보도태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기획기사, 인터뷰 기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통해 측정했다. 소개 홍보 또는 단순스트레이트 기사는 보도태도 측정에서 제외했다. “심포지엄이 열린다”와 같은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는 간단한 행사 정보제공 역할 외에 쟁점화하거나 수용자의 사고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 인터뷰는 신문의 속성상 비판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아 우호적인 기사일 수밖에 없지만 기사를 따라 읽으면서 대체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했나 살펴보기 위해 포함했다.

1. 스트레이트 기사 분석

스트레이트 기사는 총 33건으로 경향신문이 1건, 동아일보 9건, 조선일보 12건, 한겨레신문 11건이다.

<표 7> 스트레이트 기사 목록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p>*AHCC피엠버섯균 사체 암 치료 효과 (07.02.05)</p>	<p>*건강식품 569개중 의학적 약효 인정 88개뿐 (07.08.02)</p> <p>*AHCC피엠버섯균 사체 암 치료 효과 (07.02.05)</p> <p>*서울대의대 한의학 관련 강좌 개설 (06.08.31)</p> <p>*한일합동 미술치료 학술대회 (06.04.17)</p> <p>*대한의사협회, 건강 기능식품 대체요법 대상 효능발표 (05.05.10)</p> <p>*무안 기업도시에 대체요법단지 (05.07.29)</p> <p>*건강기능식품 치료 효과 논란 (05.07.29)</p> <p>*동중요법 자연치유력 키워 (02.03.25)</p> <p>*침술 등 대체의학 미국서 인기 (01.08.22)</p>	<p>*전남 보완대체의학 거점 조성탄력 (07.08.14)</p> <p>*장애아 예술치료페 스티벌(07.07.30)</p> <p>*올리브액 추출액 면역력 강화 효과 (07.04.18)</p> <p>*노인병원가이드 (07.04.04)</p> <p>*전남 보안 대체 의학산업적극육성 (07.03.27)</p> <p>*서울대의대 한의학 관련강의 도입 (06.08.31)</p> <p>*비타민C로 AI극복 서울대 이왕재 교수 주장 (05.11.16)</p> <p>*무안 기업 도시 내 건강단지(05.07.11)</p> <p>*보완요법 건강식품 효과 논란(05.05.11)</p> <p>*암 대체 보완의학 안내서 출간 (03.11.05)</p> <p>*신경림 이대간호학과 교수-쑥뜸연구프로젝트 (03.11.03)</p> <p>*대체의학‘동중요법’ 방영 (02.03.07)</p>	<p>*암 보완통합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 (07.03.12)</p> <p>*건강식품 보완요법 27%만 효과 (05.05.10)</p> <p>*무안 기업 도시 내 보완대체요법단지 (05.07.09)</p> <p>*요가, 임산부에 좋아 (05.05.22)</p> <p>*오홍근, 자연치료의 학술간 (04.10.23)</p> <p>*통합의학 책 잇따라 (04.09.15)</p> <p>*원광대 대체의학 대학원사랑나눔 (04.07.29)</p> <p>*이성재, 유럽의 자연의학출간(03.01.15)</p> <p>*동중요법 방송예고 (02.03.09)</p> <p>*침술, 신비인가 과학인가 방영 (01.08.25)</p>

a.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보완대체통합의학과 관련한 스트레이트 기사가 이 기간동안 1건이 검색됐다. 관련 기사는 단순 소개성 기사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b.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총 8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단순 행사 소개 관련 기사를 제외한 건이 분석대상이다. 건강식품의 효용성과 대체의료 이용에 관한 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강식품 성분 569개중 의학적 약효 인정 88개뿐’,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건강기능식품·보완대체요법 대상 효능발표’, ‘건강기능식품 치료효과 논란-의학단체 대부분 근거 불충분’기사가 눈에 띈다. 건강식품·대체요법 관련 기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한 쪽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기사들이어서 매우 중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에서 ‘한 의학과 보완의학’이라는 강의를 선보인다는 기사는 일반인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기사여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1) 건강식품 관련

국내에서 사용되는 74개 건강기능식품 성분의 약효 569가지를 조사한 결과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15.5%인 8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의대 통합의학교실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미국국립보건원(NIH)이 발표한 건강기능식품 보고서를 질 환별, 성분별로 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NIH 보고서는 해당 전문가들이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발표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논문을 분석해 성분별 효과를 A, B, C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A등급은 ‘강력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B등급은 ‘사용해도 되는 어느 정도의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C등급은 ‘사용해도 좋을지 아직까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 고려대 분석 결과 A등급을 받은 약효는 37개, B등급은 51개, C등급은 481개로 나타났다. A, B등급은 어느 정도 약효가 인정된 것이다.

홍삼은 정신 수행 능력 향상과 당뇨병에서만 B등급을 받았을 뿐 체력 증진, 피로 해소, 면역 증강, 치매 예방 등에서는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이는 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육체적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성재 고려대 의대 통합의학교실 교수는 “569개 약효 중 481개가 C등급을 받은 것은 이들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논문이 부족하거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녹차, 홍삼 등 국내의 대표적인 성분들이 외국에서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

의학 저널에 발표할 수 있는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건강식품 569개중 의학 적 약효인정 88개뿐 07.08.02).

버섯 추출물로 만든 건강식품 'AHCC'가 초기 인플루엔자 및 조류독감 등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제 영양학저널(The Journal of Nutrition)과 일본 보완대체의학회지 최근호에 따르면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대학의 엘리자베스 M. 가드너 박사팀은 사람의 유년기, 노년기에 각각 해당하는 쥐를 대상으로 AHCC를 매일 투여한 결과, 체내 면역세포(NK세포)의 활성을 증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AHCC 인플루엔자 예방효과 07.02.05).

5월 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70종의 건강기능식품과 보완대체요법을 대상으로 효능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총 6개의 등급 중 1등급(권고)은 없었으며 2등급(권고가능)은 설사의 유산균 치료효과 등 4종류였다. 글루코사민의 관절염 치료 효과는 3등급인 '권고고려'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보완대체의학회는 글루코사민을 최고등급인 A등급을 준 바 있다.

반대론자들은 “글루코사민이 뼈의 성분이라 하지만 먹었을 때 뼈를 재생하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도가니를 먹는다 해서 연골이 재생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란 얘기다. 쉽게 논쟁이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공통점은 있다. 치료용이 아니라 예방용으로 글루코사민을 먹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점이다(대한의사협회 대체요법·건강기능식품 대상 효능 발표 05.05.11).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상당수가 질병 치료 효과가 미약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국내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보완요법 70종을 분석한 뒤 6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다.

그 결과 최상등급인 '권고'에 해당하는 품목은 단 한 종류도 없었다. 두 번째 등급인 '권고가능'에는 유산균(급성감염성 설사 치료 시), 비타민A(홍역), 마그네슘(천식), 태극권(균형감 상실) 등 4종류가 뽑혔다. 이어 '권고 고려'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은행잎(질름발이), 글루코사민(골관절염) 등 15종류가 뽑혔다(건강기능식품 치료효과 논란, 05.07.29).

(2) 대체의학 이용 관련

“대체의학 열풍”이라는 다소 호의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따라 읽다보면 대체의학의 종류와 매니아 계층을 통해 대체의학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 대체의학의 개념과 현대의료의 흐름, 국내 시장규모, 외국의 경험을 소개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과장위험에 대해 빼놓지 않고 있다. 이어 대체의학 전문가들의 말씀을 빌려 조심스럽게 검증된 요법을 이용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대체의학 열풍이 불고 있다. 요가 명상 등 이른바 ‘참살이(웰빙) 운동’이나 기체조 경락마사지도 대체의학의 한 종류다. 대체의학은 미국 유럽에서는 정통 현대의학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분야를 뜻하지만 국내에서는 현대의학 한의학 이외의 영역을 말한다. 민간요법도 포함된다. 현재 정통의학에서 비만 치료에 쓰이는 메조세러피, 주름 제거에 쓰이는 보톡스, 통증 치료에 쓰이는 ‘근육 내 자극치료(IMS)’ 역시 처음에는 대체의학으로 시작됐다. 대체의학도 나중에 ‘근거’와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정식 의학 분야로 흡수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대체의학으로 불리는 치료법은 70여 종이다. 자연의학, 민간의학, 전통의학 등으로 불리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대체의학 시장규모를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대체의학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과학적 근거가 없어 치료 효과는 주로 환자의 입소문으로 떠돌고, 그런 만큼 효능 효과가 과장되기 쉽다.

치료사들은 ‘세계 유일의 치료법’ ‘암을 완치했다’는 식으로 선전하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환자나 그 가족에게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없는 점도 우려스럽다. 어떤 방식으로 병을 고쳤다 해도 그것이 과연 대체요법 때문인지, 일시적 호전인지, 장기적인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다는 것.

대한보완대체의학회 이성재(李星宰) 이사장은 “외국에선 연구 결과가 축적돼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선불리 환자 치료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천중문의대 전세일(全世一) 대체의학대학원장도 “대체의학은 만병을 고치는 슈퍼의학이 아니다”며 “맹신하면 정통 현대의학 치료를 불신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대체의학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검증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그 대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醫術이나 疑術이나...대체의학 열풍 05 10.23).

침술이나 요가, 뇌파조절을 통한 생체 자기제어(바이오피드백), 향기치료 같은 이른바 대체의학이 이미 미국 의료의 기본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버드대학 의대와 이 학교 대체의학센터의 역학(疫學) 연구자인 로널드 케슬러가 최근 조사한 결과는 미국인들의 보완 대체의학(CAM) 이용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

며 이 같은 흐름이 조만간 사라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님을 보여준다. 케슬러는 각 연령층의 미국인 2천55명을 면접,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지난 50년 동안의 대체의학에 대한 대중 참여도를 조사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내과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0년대 이후 전 연령층의 대체의학 이용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올해로 33세가 된 베이비붐 이후 세대의 70%가 대체의학 이용경험이 있었다(침술 등 대체의학, 美대중들에 인기 01.08.22).

정부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제안을 거부했던 서울대 의대가 올해 2학기에 한의학 관련 강의를 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강의가 서울대 의대에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의대는 본과 4학년 과목인 ‘환자, 의사, 사회(PDS·Patient, Doctor, Society)’를 통해 ‘한학과 보완의학’이란 강의를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강의는 이 과목의 총 30시간 가운데 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서울대 의대에 첫 한의학 강좌 06.8.31).

c.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 12건을 실었다. 전남도의 보완대체의학 육성 사업에 대한 기사는 대체의학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좋은 기사로 보인다. 다만 지역판에만 보도돼 전국적으로 보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보완요법·건강식품 효과 논란’ 기사에서 양쪽 권위자의 말씀을 인용해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외에 서울대 의대 한의학 관련 강좌 개설, 장애아 예술치료 페스티벌 등 기사가 돋보인다.

전남도가 보완대체 의학을 육성하기 위해 고려대 의과대학과 상호교류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 중인 ‘보완대체의학 거점(HUB)’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홍승길 고려대학교 부총장은 13일 전남도청에서 상호 교류·협력 협약서를 교환하고, 보완대체의학 관련 기업을 전남지역에 유치하는데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화와 만성·난치성 질환 증가로 보완대체의학의 세계 시장규모는 2008년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도는 보완대체의학 국제심포지엄과 박람회 등을 차례로 열어 국내 보완대체의학 관련 의료산업을 선점하고 향후 국가지원 등을 이끌어 내는데 이번 협약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남 ‘보완대체의학 거점’ 조성 탄력 07.08.14).

대한의학회(회장 고윤웅)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국내서 인기를 끌고 있는 72가지 보완대체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대체요법 전문가들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측은, 그러나 의사들이 서양 의학적 관점만으로 일방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학회와 의사협회는 ‘CAM(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년 동안 72가지 보완대체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했다.

CAM 실무위원회 간사인 조수현 서울의대 교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대체요법이나 기능성 식품의 효과와 안전성 여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 대학원 전세일 원장(전 연세의대 재활병원장)은, 그러나 “대체의학은 원래 현대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어려운 분야”라며 “현대의학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보완요법·건강식품 효과 논란 05.05.11).

d.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은 총 11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상대적으로 기사의 다양성이 있고, 행사 단신이나 책 소개, 방송예고를 빠뜨리지 않고 보도했다. 특히 방송예고 기사 중 동종요법, 침술프로그램은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기사선택 과정에 대체의학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외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보완요법 및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권고할 수 있거나 권고를 고려할 만한 것은 유산균(급성 감염성 설사) 등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건강식품계는 이 분석이 과거의 조사와 비교해 일관성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회장 고윤웅)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널리 쓰이고 있는 72가지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국내외의 모든 의학 및 대체보완의학 논문을 검색·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 분석에서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권고’ 등급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인삼(암 예방), 녹차(관상동맥질환, 비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들도 ‘근거 자료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

이번 연구를 이끈 조수현 서울대 의대 교수는 “분석 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34건이

판단 자료 불충분 등급으로 분류됐다”며 “이 등급은 아직까지 근거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효능·효과에 대해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쪽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글루코사민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학계는 이전에 글루코사민에 대해 최고의 효과를 가진 제품으로 평가했다”며 “의학계 내부에서조차 엇갈리는 평가 결과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실무위원회는 이에 대해 “12명의 의사와 5명의 도서관 사서, 자문위원 5명 등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1년간 펙메드, 메드라인 등 국내외 의학 및 대체보완의학 관련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뒤져 관련 근거를 찾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인삼·녹차 효과, 근거 불충분” 대한의학회·의사협회 발표…05.05.10).

임신 중 요가 단련이 조산을 방지하며 출산의 전반적인부작용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 연구자들이 20일 밝혔다.

이 연구에서 요가 단련은 몸풀기와 자세, 긴장 이완, 호흡훈련, 명상 등을 매일 한 시간씩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결과 요가를 한 여성들은 조산 비율이 14%로 일반 간호 그룹 29%보다 낮았고 임신과 관련된 고혈압도 적었다. 이 연구는 대체보완의학저널에 발표됐다(요가, 임신부에 좋아 05.05.22).

2. 기획기사 분석

이 기간동안 4개 신문은 기획 기사를 49건 내보냈다. 경향신문 35건, 동아일보 9건, 조선일보 8건, 한겨레신문 6건순이다.

<표 8> 4개 신문의 기획기사 목록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보완대체의학을 찾아서 - 색갈요법 (05.06.27)	*한국교육개발원연구원명상수련 (06.02.12)	*화순‘라이프클리닉’ 소개(07.07.23)	*건강이야기
*보완대체의학을 찾아서 -오감요법 3	*공부의적 가려움 잡아주세요 (05.11.15)	*암-보완대체요법이대로 좋은가 (07.03.21)	*보완통합의학 현황 4-수기치료(05.11.17)
*보완대체의학을 찾아		암- 값비싼 건강식	*보완통합의학 현황 -일반인들 묻지마 복용3(05.11.10)

<p>아서 -오감요법 2 8보완대체의학을 찾 아서 -오감요법 1 *킬레이션 해독요법 *마크플라워요법2 *마크플라워요법1 *세포대사요법2 *세포대사요법1 *비타민 미네랄요법 *8일 단식법 *단식요법5 *단식요법4 *단식요법3 *단식요법2 *단식요법1 *영양요법 *납수은킬레이션 치 료법 *물 치료법 *수치료법 *동종치료 *동종약물 *동종요법 *마사지요법 *근운동 응용요법 *생체전자기 요법 *아유루베다 *아로마향기 *심상요법 *명상요법2 *명상요법1 *심리상태파악이 중 요 *명상건강학 *자연치료법 병행 *성인병</p>	<p>*봉침, 해독, 음악 치료(05.11.14) *대체의학을 해부 한다3 만성질환도고친다? (05.11.08) *대체의학을 해부 한다2 암의 대체의 학치료 (05.11.01) *대체의학을 해부 한다1 대안이나 상 술이냐(05.10.25) *醫術이냐 疑術이 냐(05.10.23) *보완대체요법 하 - 동종요법 등 (02.11.03) *보완대체요법 상 - 들풀, 물 (02.10.28)</p>	<p>품피하라(07.03.21) *멀미하는 아이 레 몬차(06.09.28) *비방에 속지말고 의사를 믿자 (05.02.02) *암, 이렇게 이긴다 (03.06.18) *미국, 멕시코 대체 의학현장취재기 2 (02.01.10) *미국, 멕시코 대체 의학현장취재기1 (02.01.03) *영양보조요법 (01.02.01)</p>	<p>*보완통합의학 현황 -마음다잡아 몸의 병 다스린다 2 (05.11.03) *보완통합의학 현황 -침, 동양신비넘어 생활 속 클리닉으로 1(05.10.27) *음악 미술치료 (05.03.30)</p>
---	--	--	--

a.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총 35건의 기획 기사를 내보냈다. 1주일에 한 주제씩 거의 1년에 걸쳐 대체의학의 전 유형을 꼼꼼하게 보도했다. 신문사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홍근 전주대 의생명환경대학장에게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전문가에게 맡겼다.

b.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기획 기사를 총 9건 보도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담을 내용을 다 담았다고 보인다. 2007년 봉침·해독요법·음악치료, 2005년 ‘제3의 의술’ 대체 의학을 해부한다] <3>만성질환도 고친다?, ‘제3의 의술’ 대체 의학을 해부한다] <2>암의 대체 의학 치료, ‘제3의 의술’ 대체 의학을 해부한다] <1>대안이나 상술이나 등 3회와 2002년 보완대체요법 上·下 2회에 걸쳐 대체 의학에 관한 개념, 유형, 이용 현황 등을 보도했다. 2002년 동중요법에 대해 기사화해 총 7회를 통해 ‘대체 의학의 모든 것’을 보도했다.

“‘제3의 의술’ 대체 의학을 해부한다] <3>만성질환도 고친다?” 기사에서 만성질환 중 우울증, 당뇨, 아토피, 고혈압, 만성피로, 향기치료, 침술, 카이로프랙틱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제3의 의술’ 대체 의학을 해부한다. <2>암의 대체 의학 치료”에서는 암 치료분야에서 대체 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즉 현대 의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스려 면역력을 키워 암을 다스리는 보완치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제3의 의술’ 대체 의학을 해부한다. <1>대안이나 상술이나”에서는 대체 의학이나 사이비나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기사화했다.

이외에 2002년 “보완대체요법 상·하”에서 동중요법 향기치료 심신의학 자장치료 자연치료 물 치료에 대해 기사화했다. 개념에서부터 이용현황, 외국의 이용실태, 한계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제3의 의술’ 대체 의학을 해부한다] <3>만성질환도 고친다?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보완대체 의학에서 미술과 음악은 좋은 우울증 치료제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보완대체 의학이 현대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금물이다”며 “정

통 현대의학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어린이 심장병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다. 만성질환의 보완대체의학치료법에 대해 들어 봤다.

▽우울증=음악과 미술치료는 개별 환자가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룹으로 많이 한다. 여러 명이 어울려 놀면서 ‘밝음’을 이끌어낸다는 원리다. 그리기나 색종이 오리기, 합창하거나 연주하기 등이 있다. 생약요법도 있다. 허브의 일종인 ‘성 요한 풀’은 우울한 기분을, ‘카바’ ‘발레리안’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가벼운 증세일 때 효과가 있다.

▽당뇨병=정통 현대의학의 처방과 비슷하다. 정기적인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미나 통밀처럼 오래 씹을 때 단맛이 우러나오는 ‘복합 당’ 식품을 권장한다.

▽아토피피부염=정통 현대의학과 거의 흡사하다. 다만 생약치료가 자주 활용된다.

오메가지방산이 풍부한 ‘달맞이꽃 종자유’를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외국 연구가 있다. 또 감자 전분 또는 녹말과 소다를 혼합한 물로 목욕을 20분 정도 하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고혈압=‘포타슘’ 섭취가 권장된다. 소금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 혈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 환자의 70%가 8주 뒤에 혈압이 떨어졌다. 포타슘은 고구마 감자 호박 바나나에 많이 들어 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도 권장된다.

▽만성피로=생약요법 중 마황과 오갈피가 많이 처방된다. 마황의 ‘에페드린’, 오갈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운동 능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인다는 연구가 나와 있다.

갱년기 초기엔 아로마테라피가 효과 있다. 보완대체의학에서는 이에 따라 여성호르몬과 비슷한 식물성호르몬 치료법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콩과 ‘승마’ ‘달맞이꽃 종자유’ 등에서 추출한 생약이다. 갱년기 초기일 때는 아로마테라피도 효과가 있다. 보통 장미향이나 네롤리 향 또는 채스민 향을 많이 사용한다.

‘침술요법’이나 뼈를 똑바로 맞추는 ‘정골 요법’도 두통 치료에 사용된다. 정골 요법은 근육과 뼈의 구조를 정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인체 내부의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는 원리다. ‘카이로프랙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런 요법은 전문가로부터 받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05.11.08).

‘제3의 의술’ 대체의학을 해부한다 <2>암의 대체의학 치료

40대 남성 암 환자가 대체의학 치료의 일종인 가족치료를 받고 있다. 이병욱 교수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아내를 껴안고 있다. 가족요법은 가족 간의 사랑을 복돋움으로

씨 체내의 면역력을 강화해 암세포와 싸우는 보완대체의학의 한 부분이다.

이 교수의 또 다른 치료 사례를 보자. 40대 주부 B 씨는 유방의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돼 2개월의 시한부인생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4개월간의 치료 끝에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됐다. 40대 후반의 전직 교사 C 씨는 위암 수술을 끝낸 뒤 구토와 복부 통증 때문에 고통이 컸다. 그러나 2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역시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 교수는 원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였다. 10여 년간 1만 명의 암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는 동안 환자가 편안해지고 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치료법이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보완대체의학을 선택했다.

그의 ‘철학’을 들어 보자. 우선 현대의학을 부정하지 않는다. 수술이나 약물, 또는 방사선 치료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또 현재 환자가 현대의학 치료를 받고 있다면 굳이 중단하지 말 것을 권한다. 둘째,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을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면역체계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는 생각에서다. A 씨의 경우 ‘미슬토’란 겨우살이 나무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이용한 생약요법을 시행했다. 웃음치료 역시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면역요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단된다. 셋째, 가능한 모든 요법을 활용해야 한다. 넷째, 가족이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05.11.01).

‘제3의 의술’ 대체의학을 해부한다] <1>대안이나 상술이나

정말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상술에 불과한 것인가?

○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다

미국에서는 현대의학을 뺀 나머지 영역을 모두 대체의학이라 부른다. 국내에서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제외한 영역을 대체의학으로 본다. 넓은 의미에서는 민간요법, 자연요법 등도 모두 대체의학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과학적이든 비과학적이든 일단 연구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만 연간 수백억 원씩 이런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연구든 현대의학을 ‘대체(Alternative)’할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슈퍼의학’을 찾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 근거중심의학이 대세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입증된 치료법만 환자 치료에 이용한다. 이를 ‘근거

중심의학'(EBM·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부른다. 현재 미국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인정받은 분야는 생약치료, 침술, 카이로프랙틱, 동종요법 등 20여 종류가 있다.

○ ‘연구소’ ‘세계에서 유일’ 등으로 광고하면 일단 의심을

대체의학 전문가들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이비 시술과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한다. 한 대학교수는 “잘못된 대체의학 시술을 받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사이비 대체의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 다만 대체로 ‘…연구소’란 이름을 내걸거나 ‘우리 제품(치료법)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효과가 몇 개월 만에 나타난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미국에선…효과 입증돼야 치료에 이용▼

미국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대체의학만 환자 치료에 이용된다. 기준은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얼마나 많은가’다. 현재까지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건강기능식품과 치료보조제다.

영양요법 또는 식이요법으로도 불리는 응용임상영양요법은 단순하게 영양을 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병 치료에 응용하는 개념. 환자의 상황이나 증상에 따라 단식, 절식, 치료보조제, 해독요법, 분자 차원에서 영양을 다루는 방법 등 먹는 방법과 종류를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생약요법도 광범위하게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동종(同種)요법은 유럽에서는 ‘제2의 의학’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병의 증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병적인 상태와 가장 가까운 상태, 즉 ‘동종’의 약을 주입해 치유력을 키운다는 원리다. 생체자기제어요법(바이오피드백)은 생리기능을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이를테면 변비 환자가 항문에 힘을 제대로 주는 법을 말한다. 뇌중풍(뇌졸중) 재활 치료에도 시도되고 있다. 음악 그림 무용 등을 활용한 예술치료, 명상 요가 등은 우울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침술도 많이 쓰이는 분야다. 특히 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그 밖에 통증 치료에 IMS(근육 내 자극치료)가, 척추 치료에 카이로프랙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05.10.25)

보완대체요법(下) 할미꽃물 먹으면 중이염 ‘말끔’

동종요법에 사용되는 약품은 1500여 가지. 가천의대 길병원 통합의료센터 이성재 교수가 환자와 상담하면서 동종요법 치료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주엔 동종요법, 향

기요법, 심신의학, 자석요법을 소개한다.

▽동종요법▽

‘질병을 일으키는 식물이나 광물을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하면 오히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원리. 가령 중이염이 생기면 서양의학에선 염증억제제와 항생제를 처방한다. 반면 동종요법에선 중이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할미꽃 계통의 식물인 ‘필자틸라’를 물에 희석시킨 뒤 환자에게 먹여 치료한다. 전문가들은 ‘필자틸라’가 인체에 들어가 자가면역을 자극하면 스스로 치료가 되는 것으로 본다. 효과가 있는 질환으로 △알레르기 기관지 천식, 폐렴 △협심증 심장부정맥 고혈압 △아토피 피부염 △중이염 편도선염 축농증 △변비 설사 간염 간경화 위궤양 위장염 △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파킨슨병 신경마비 △두통 편두통 △갱년기 질환 △우울증 수면장애 주의력결핍 학습장애 △만성통증 등이 있다.

가천의대 길 병원 통합의료센터 이성재 교수는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은 제외되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향기치료법(아로마테라피)▽

향기가 나는 식물로부터 추출한 오일을 흡입하거나, 몸에 바르거나, 오일이 담긴 물에 목욕하는 것으로 질환을 치료한다. 국내에선 한국아로마테라피협회(www.worldaroma.co.kr)를 중심으로 300여명의 의사가 향기치료로 활동 중. 일반인들도 협회에서 주관하는 20여 시간의 강좌를 들으면 향기치료를 할 수 있다.

향기치료법의 원리는 코에 흡입된 향 입자가 코 속에 분포된 후각신경에 접촉하면 이와 연결된 대뇌에 전해져 뇌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등의 분비를 조절한다는 것. 두통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등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심신의학▽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기능과 심장기능 등이 나빠지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 심장병 또는 암이 유발될 수 있다. 심신의학은 명상요법 호흡법 바이오피드백 등 신체적 정신적인 이완요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원리.

▽자석요법▽

자석으로 생긴 자장은 인체에 들어가 신경계 기관과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세포의 산소공급이 잘 되도록 한다. 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사용된다. (02.11.03)

보완-대체요법(上) 들끓-물로 질병을 고친다

최근 의사나 일반인 중심으로 전통 한의학을 비롯한 보완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가천의대 길 병원 통합의료센터 이성재 교수와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전세일 교수에게 서양에서 검증된 대체보완요법에 대해 물었다.

Q:외국의 실태는?

A:독일 영국 등의 유럽과 미국은 의사들 중심으로 보완대체요법이 체계화돼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보완대체요법이 교과과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개원한 의사의 80%는 실제 환자 치료에 이를 응용한다. 미국은 현재 하버드대, 애리조나 주립대 등 80여 개의 의대에서 보건의대체의학 교과과정으로 동종요법 침술 심신의학 자연치료법 등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일부 클리닉에선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Q ;자연치료법이란?

A:자연식물에서 추출한 약품을 치료에 응용하는 의학이다. 치료에 사용되는 원료가 모두 식물에서 얻어지며 약품은 알약이나 연고 주사제 형태로 돼 있다.

Q:자연치료법과 한방의 다른 점은?

A:한약재와 비슷할 수 있으나 한약은 여러 성분이 혼합된 것이지만 자연치료약물은 단일 성분으로 돼 있다. 또 환자의 진단과 치료는 현대 서양의학을 공부한 전문가가 담당한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환자는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한다.

Q:물 치료법이란?

A:물의 열이나 압력, 소용돌이와 같은 물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 물리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Q:물 치료법의 원리는?

A:뜨거운 물은 사람의 면역체계를 자극해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며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막아 염증을 예방한다. 또 냉온교대요법은 인체 내 호르몬 분비를 맡고 있는 내분비기관을 자극해 염증을 줄이고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Q:물 치료법에 잘 듣는 것은?

A:류머티즘과 퇴행성관절염, 근골격계 통증, 만성 심부전증, 두통, 저혈압, 만성 변비, 위장 장애 등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된다. 유럽에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전문 물 치료사가 치료한다. 02 10 28

유럽 인도 등을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종요법(Homeopathy)이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으로 치료한다’는 기본원리를 활용하는 동종요법은 현재 세계 5억 인구가 이용하는 대체요법. 일부 동종요법 치료약은 미국식품의약국(FDA)도 약효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선 개업의사 중 4분의 3이 서양의학과 동종요법을 병행해 치료하고 있고 프랑스에선 의사의 40%가 동종요법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의 정부는 ‘동종요법’에 의한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인정한다.

국내에서는 최근 가천의대 길 병원과 포천중문의대 차병원 2곳이 동종요법 클리닉을 개설했고 일부 개업의가 진료에 이용하고 있는 정도로 ‘시작 단계’다.

▽동종요법의 원리=동종요법의 영어 ‘homeopathy’는 그리스어 ‘humorous’(비슷한)와 ‘pathos’(괴로움)를 합친 말. 환자의 괴로운 상태와 ‘비슷한 괴로움’을 인위적으로 유발해 우리 몸의 자연치유능력을 가동시켜 병을 치유하는 것.

이는 서양의학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는 결핵, 홍역 등의 예방접종 원리와 비슷하다. 즉 결핵의 경우 백신으로 소량의 결핵균을 인체에 투여하면 인체는 자가면역능력이 형성돼 결핵균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며 진짜 결핵균이 침입했을 때 인체는 결핵균에 저항한다.

▽동종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할미꽃 측백나무 꿀벌 오징어 소금 철 금 은 등 식물이나 광물 원료를 이용한다. 치료제는 자연 원료의 원액을 수만 수천 만 번 이상 희석한 다음 아주 강하게 흔들어 섞어주는 ‘진탕’이라는 특수과정을 통해 제조된다.

동종요법에 사용되는 300여종의 치료제는 FDA가 시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동종요법이 발달된 유럽에는 등록된 약품만 1500여 종에 이른다.

▽한계점=환자의 체질을 중시하며 인체의 자연치유 능력을 자극하는 자연 치료제를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서양의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수준. 병이 진행된 사람에게는 수술 뒤 재발을 예방하거나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데 동종요법이 사용되며 완치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도 통증을 없애는데 주로 사용된다. (02.03.25)

c.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기획기사는 8건이지만 암 치료에서 대체요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미국과 멕시코의 대체의학 현장취재기를 싣고 있다. 2007년 3월 21일 자에 “암, 보완대체요법 이대로 좋은가”를 한 면 전체를 털어 기사를 실었다. 암 치료 중 치료를 중단하고 상황버섯을 먹어 결국 죽어버린 환자에 대한 기사로 의사와 상의 없이 또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맹신하지 마라는 내용과 “값비싼 건강식품 피하라” 부제가 붙은 기사에서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해 턱없이 비싼 건강식품에 기대지 마라는 내용이다. “암, 보완대체요법 이대로 좋은가 - 치료중단 상황버섯 복용환자 그 후, 값비싼 건강식품 피하라”는 내용은 그런대로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객관성을 보이려 했으나, 대체의학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하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제목이다. 또 2003년 “암, 이렇게 이긴다”는 기사는 부제가 “대체의학의 두 얼굴”이어서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은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미국 멕시코의 대체의학 현장취재기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기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서, 기자가 현대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 신분의 전문기자인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제도 “불치병 완치... ‘기적’인가 ‘사기’인가, 미국의 대체의학 ‘열풍’ - ‘동양의 기’ 21세기 생명공학의 핵”이어서 기자 자신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암 ‘보완·대체 요법’ 이대로 좋은가 - 치료 중단, 상황버섯만 복용한 환자... 그 후

2004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경북에 사는 60대 남성이 폐암 2기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70%를 넘는다”고 했다. 이 남성은 그러나 수술에 앞서 암 크기를 줄이는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 의사 몰래 1500만원을 주고 상황버섯을 구입해 복용하기 시작했다. 복용 과정에서 시커먼 가래가 나오자 ‘버섯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오관하고 아예 병원치료를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9개월 뒤, 증상이 악화된 그가 다시 병원에서 CT검사를 했을 때는 이미 암이 폐 전체에 퍼져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그는 사망했다. 대학병원 암 전문의에게 가면 이런 사연을 끝도 없이 들을 수 있다.

대체의학이란 이름을 단 마케팅을 펼치며 암 환자들의 약점을 파고든다. 물론 보완·대체 요법이 모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완·대

체 의학(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란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보협적용도 된다. 그러나 암 센터 등과 같은 공식 의료기관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다. 또 이런 모든 과정은 의사들이 주도한다. 우리나라의 보완·대체 요법은 대부분 건강식품 위주이지만, 외국에서는 명상, 미술·음악치료, 요가·기공, 식물성 약재 사용 등 다양하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보완요법의 필요성은 의사들도 인정한다. 다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요법을 환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그 결정 권한을 의료진이 가져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환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장삿속이지만, 의사들의 무관심도 상당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암퇴치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고려대 조무성 교수는 “의사는 보완·대체 요법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연구 없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얘기하고, 환자는 믿을 만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장사꾼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완·대체 요법에 대한 결정을 환자 등 비 전문가들에게 맡겨 놓지 말고 의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최한 ‘암-보완통합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이란 심포지엄도 이런 맥락에서 마련됐다(07.03.21).

암 ‘보완·대체 요법’ 이대로 좋은가- 값비싼 건강식품은 피하라

보완요법을 한다면 어떤 상태의 암 환자가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또 어떤 보조요법은 하지 말아야 할까?

가정의학 전문의로 3기 직장암을 이겨낸 암환자협회 최선규 회장은 “의사와 상의해 암 발병 초기부터 인체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보완요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말기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값 비싼 보완 요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암 치료제’를 내세우는 이들은 비쌀수록 약효가 뛰어나다는 환상을 조장하며, 터무니없는 고가로 암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 최 회장의 말이다. 그는 “암 치료를 도와주는 건강식품은 몰라도 암을 치료하는 건강식품은 없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는 “인삼·홍삼 등의 암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입증돼 있으나, 그것이 암을 치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암 치료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너무 값비싼 요법은 피하라 ▲주치의와 꼭 상의하라 ▲보완요법은 의학치료를 ‘보완’하는 데 그쳐야 하며, 성급히 ‘대체’하지 말라 ▲먹는 것 외에 운동·음악·미술요법 등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다(07.03.21).

비방에 속지 말고 의사를 믿자

최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전해명 교수팀은 위암 치료 중인 환자 19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보완대체의학의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의 41%가 의사와 상의 없이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했으며, 이용한 방법은 상황버섯, 인진쑥, 가시오가피 같은 건강보조식품(52%), 녹용이나 인삼(26%), 그 밖의 한방 탕약(10.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고학력자일수록 건강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뇨기종양학회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 학회가 방광이나 전립선 등 비뇨기계 암 환자 7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가 민간요법을 써 본 적이 있으며, 민간요법의 평균 치료기간도 39.6개월이었다. 역시 대학원 졸업자가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버섯, 인진쑥, 가시오가피, 헛개나무, 뱀, 지네, 고양이, 잉어즙, 태반, 소변, 이름 모를 나무껍질과 정체불명의 중국약, 그리고 각종 건강보조식품들... 상식적으로 병원과 약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온갖 식품들이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겐 명약이나 비방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의사들은, 그러나 병원 치료를 마다하고 이런 ‘명약’과 ‘비방’에 매달리다가 시간과 돈 낭비는 물론,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고광철 교수는 “민간요법의 폐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혹은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효 성분은 없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05.02.02).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법을 꼽으라면 통상 수술·방사선·항암제 3가지를 든다. 그 이외의 치료법은 대체의학 또는 보완요법에 속한다. 실제로 아주대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0% 이상이 병원에서 권고한 치료법 이외의 방법을 시도했다고 응답했다. 암 진단과 치료 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종류의 대체 의학을 사용했으며, 한 암 환자는 총 25가지의 방법들을 시도한 기록도 있다. 그럼 대체의학의 항암 치료 효과는 과연 어떨까. 대체의학 전문가인 아주대병원 치료방사선과 전미선 교수와 중앙혈액내과 임호영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대체의학요법의 두 얼굴=어떤 암 환자는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만 탕진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우선은 효능을 입증할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확률적 오차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가 의학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효능 판

정에 오류가 생긴다. 중간에 효과를 못보고 탈락하는 환자는 전체 샘플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하나의 특이한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고 일반화 된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다.

인삼 등 면역력 증강 목적으로 먹는 식품들도 복용 기간과 복용량에 따라 효과·부작용이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대체의학요법은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것만은 조심=암환자들이 치료에 상관없이 갑작스레 간 기능이 나빠지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암 전문의들은 환자가 상황버섯을 과용했는지 살펴본다. 암 치료를 목적으로 종종 복용되는 상황버섯도 그 화학적 성분은 간을 통해 대사되며, 과용시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버섯의 항암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종종 보고 되는데, 실험실 결과는 암세포 90%를 죽일 수 있는 용량은 간세포도 50%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황버섯을 과용할 경우, 독성 간염이 생길 수 있다.

간혹 암환자의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옷담을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옷담은 흔히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며, 암 치료로 면역체계가 약해진 환자에서는 더욱 심한 알레르기 현상이 발생한다. 심지어는 이것으로 입원을 하게 되고, 암 치료까지 지장 받게 된다.

침술의 효능은 다른 어느 대체요법보다 연구가 활발한데, 침이 만성 통증을 줄여주고 항암치료의 메스꺼움을 줄인다는 연구가 나온다. 그 외에도 방사선치료 후에 생긴 구강건조증이 침으로 회복됐다는 논문도 나왔다. 2003.06.18

◆건강보조식품과 암 예방 효과=각종 건강식품과 보조제들이 암 예방을 표방하고 나온다. 마늘 관련 제품의 경우 ‘알린’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늘을 즐겨 먹는 지역과 안 먹는 지역간의 암 발생률을 비교한 데이터에서 유추한 것이다.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03.06.18).

미국, 멕시코 대체의학 현장 취재기(2) - 불치병 완치...‘기적’인가 ‘사기’인가 췌장암 환자 15년 생존... 침 한방에 광명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남쪽으로 10분쯤 차를 몰아 미국·멕시코 국경을 지나자 주변 풍광은 급변했다. 180여개의 대체의학 병원과 클리닉이 모여 있다는 ‘세계 대체의학의 메카’인 티후아나에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옛날 우리 모습이 그대로 옮겨져 있었다.

1963년 설립돼 10만 명이 넘는 암환자를 치료하거나 돌본 것으로 알려진 오아시스

병원은 티후아나지 서쪽 해변에 있었다. 우리나라 시골 보건소를 조금 키워 놓은 듯한 규모. 미국과 캐나다·유럽 등 전 세계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는 병원 치곤 지나치게 허름했다.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서도 매년 20~30여명의 암환자가 찾고 있다.

병원 3층 휴게실에선 이 병원 원장 프란시스코 콘트라라스 박사가 20여명의 암 환자·보호자들에게 ‘콘트라라스 신진대사요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인체 신진대사의 부조화가 암을 비롯한 만병의 원인이며, 비타민 B17과 C를 정맥주사하거나, 상어연골 추출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진대사를 활성화·정상화시키면 암도 저절로 낫는다는 게 이 치료법의 핵심.

최근 들어 일본과 한국서도 크게 유행하고 있는 ‘거슨 요법’은 모든 육류와 가공식품·설탕·소금의 섭취를 ‘완벽하게’ 금지하고, 순수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야채만 먹는 철저한 식사요법과 몸속 독소를 빼내는 ‘커피 관장’이 핵심. 거슨씨는 “몇 퍼센트 정도의 환자를 거슨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지만 중요한 점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일반적으로 췌장암·난소암·폐암 등 악성도(惡性度)가 높아 진행 속도가 빠른 암일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 애네타일에 있는 ‘닥터 리 동양의학 클리닉’ 이영진 원장은 2cm 정도 길이의 가는 침 수십 개를 환자 칼 폭스 씨의 눈과 머리에 놓고 있었다. 텍사스 주에 사는 폭스 씨는 침을 맞기 위해 1주일에 한 번, 5주째 버지니아행 비행기를 탄다고 한다. 눈의 스크린에 해당하는 망막이 훼손되면서 결국 시력을 잃는 망막색소변성증(RP)이 그의 병명. 4년 전 RP 진단을 받은 뒤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 침 치료 전 그는 눈 정면에 있는 물체만 희미하게 겨우 볼 수 있는 상태였다. 폭스 씨는 “세 번째 침을 맞은 뒤부터 시야가 넓어지고, 물체도 또렷해졌다”며 “내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실명한 지 40년 된 사람의 눈도 고쳤다”며 “안과질환이 전문이지만 그의 모든 병도 침술과 기(氣)치료로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3개월밖에 못산다는 췌장암 환자가 15년째 생존해 있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번쩍 뜨는 이 같은 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이용해 부(富)를 축적하려는 속임수”라고 잘라 말한다. 대체의학 연구를 위해 발족된 미국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NCCAM)마저 이를 인정치 않는 분위기다. NCCAM 내에서 한 해 9000만 달러의 대체의학연구비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차정주 박사는 “약 300건의 대체의학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항암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것은 인삼 등 한약재와 상어연골 등 극히 일부뿐”이라며 “거슨 요법이나 오아시스 요법 등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현재로서 연구 대상으로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병원 콘트라라스 박사는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가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아니다’고 말한다”며 “전 세계 수백~수천 명의 불치병 환자들이 경험한 대체의학의 효과를 의사들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02.01.10).

미국·멕시코 대체의학 현장 취재기 (1) 미국의 대체의학 ‘열풍’ - ‘동양의 기’ 21세기 생명공학의 핵

현대의학과 첨단 생명공학의 나라 미국에서 대체의학 열풍(熱風)이 뜨겁다. 침술원·한의원·요가원 등이 거리 곳곳에서 성업(盛業) 중이며, 수많은 난치병자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정부와 대학도 대체의학에 천문학적 연구비를 쏟아 붓고 있다.

그들이 대체의학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체의학에서 선전하는 불치병 완치 사례들은 ‘기적’인가 ‘사기’인가. 과연 대체의학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과 멕시코 대체의학 현장 취재기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실는다. /편집자

디팩 초프라 박사는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는 ‘심신의학(心身醫學·mind-body medicine)’의 세계적 권위자. 1995년, 데이비드 사이먼 박사와 함께 세운 ‘행복을 위한 초프라 센터’는 해안을 끼고 고급 주택과 상점이 몰려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교외 라호야 지역에 있었다. 따사로운 남국(南國)의 태양이 비치는 초프라 센터는 조용하고 한가로웠다.

센터 1층에는 약초와 식물성 오일, 명상 도구, 명상 서적 등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었다. 켈리 로빈슨(63)씨는 “10여 년간 당뇨로 고생했는데, 명상을 시작한 뒤 혈당이 크게 떨어져 이젠 약(인슐린 주사) 없이도 살 수 있게 됐다. 편두통으로 고생했던 아내도 크게 좋아졌다”고 말했다. 2층 사이먼 박사의 진료실 앞에는 2~3명의 환자가 앉아 있었고, 그 옆 명상실에선 10여명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다. 수석 코치 리안 베커씨는 “이곳을 찾는 사람의 30% 정도가 희망 없이 퇴원한 암환자”라고 귀띔했다. 베커씨는 “인간에게 내재(內在)한 ‘자연적 치유능력’을 끌어내 병을 고친다는 게 심신의학의 요체(要諦)다. 이곳서 훈련받은 600여명의 코치들이 세계 25개국에서 초프라의 심신의학을 전파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워싱턴대 병원은 독립된 건물에 침술, 명상치료, 영양요법, 마사지요법, 카이로프랙틱 등 10개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통합의학센터(Center for Integrative Medicine)’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98년 산부인과 전문의 존 팬 박사 주도로 시작된 대체요법이 3년 반 만에 독립 센터로 확대된 것이다. 10명의 대체요법사가

진료하는 진료실마다 암 환자,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 불면증 등 정신과 환자 등이 진료를 받고 있었다. 침구사 헤나 브래드포드씨는 “센터는 관절염 환자서부터 임신부·불임환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병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U.C. 샌디에이고병원과 U.C.어바인병원, 애리조나주립대병원도 유사한 대체의학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조지워싱턴의대 존 팬 박사는 ▲인간을 분자로 보는 현대의학 자체의 한계 ▲인체의 자연적 치유능력에 대한 관심과 신뢰 ▲영(靈)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양적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지나친 의료비 부담에 대한 반발 등이 대체 의학을 확산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대체의학 열풍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다. 거대한 ‘흐름’이었고 ‘대세’였다. 현재 미국 내 120여개 의과대학 중 90곳 이상이 1과목 이상의 대체의학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으며, 각 대학병원과 연구소에선 경쟁적으로 대체의학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

LA 사우스베일러 동양 의과대학 박준환 총장은 “한국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전통 의학을 본국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라며 “대체 의학은 21세기 생명 공학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데, 여기서도 미국은 서너 걸음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02.01.03

d.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은 2005년 “서양의학 제3의 길 미국 보완통합의학 현황”을 4회에 걸쳐 신고 있다. 아직 흥미한 국내의 현황보다는 보완대체 의학의 메카가 되어가는 미국의 현황을 기사화함으로써 대체 의학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 듯 보인다. 이 기사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보완통합의학센터 한방재활의학과 송미연 교수를 통해 기사화했다.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찬반이 분분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1회에서는 “침술-동양의 신비 넘어 생활 속의 클리닉으로”, 2회 마음다잡아 몸의 병 다스린다, 3회생강 인삼도 허브 분류-일반인들 묻지마 복용, 4회기찬 수기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외에 관련기사로 보완통합 의학의 개념,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암 센터의 침술클리닉, 미주류사회의 명상 복식호흡 등 칼대지 않는 심신치료 활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침술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수기치료에 대해 독립 박스 기사로 처리해 보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국내 수준은 미미하지만 대체의학의 미래는 분명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외에 음악 미술치료에 대한 기사가 있다.

서양의학 제3의 길 미국 보완통합의학 현황 ④ - ‘기찬 수기치료’ 활용 늘어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의료진 60%가 스스로 마사지를 비롯한 수기치료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66%가 환자들에게 권유한 경험이 있고 66%는 수기치료가 유용하거나 매우 유용하다는 답변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 한 부분이다. 수기치료에 해당되는 각각의 치료법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치료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만 모두 사람의 몸은 스스로 조절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사람의 몸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기본 원칙은 같다. 즉 몸의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전체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며 우리 몸의 전체적인 조화를 찾음으로써 우리가 몸의 일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 사상은 ‘부분이 전체를 반영한다’는 한의학적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에너지 의학에 대해 미 국립보건원은 측정될 수 있는 실제적인 에너지와 측정될 수 없는 가상의 에너지를 다루는 영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측정될 수 있는 에너지에는 빛과 소리 같은 것이 포함되며, 측정될 수 없는 에너지에는 우리가 말하는 기(氣)의 개념이 포함된다. 즉, 몸 전체를 흐르고 있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으나 서양의학적인 도구로 측정될 수 없는 에너지를 말함이다.

존스홉킨스 의료진 66% “마사지등 환자에 권유”...침술 다음으로 많이 활용

에너지 의학은 기의 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실제적인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방법으로는 마그네틱을 이용한 치료법, 음악치료와 같이 소리를 이용한 치료법, 자연광이나 인공광선을 이용한 광선치료 등이 있으며 가상의 에너지를 이용한 치료 방법에는 침술, 기공, 동종요법 등이 해당된다.

아유르베다 의학은 고대 인도에서 발전한 의학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에 동일한 강조를 두고 개인의 타고난 조화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포괄적인 의학이다. 식이, 운동, 명상, 허브, 마사지, 호흡법 등의 방법을 포괄하며 그 중 명상과 요가가 현재 미국 사회에서 많이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동양 의학이 널리 접목되고 있긴 하지만 근거 중심의 의학을 지향하는 미국 의학에 있어서 동양 의학의 기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하

지만 미국에서는 동양 의학의 치료기전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05.11.17).

송미연 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교환교수

서양의학 제3의길 미국 보완통합의학현황 ③ - 일반인들 묻지마 복용

미국 곳곳에 자리잡은 상점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비롯한 식품보조제(dietary supplement)와 ‘허브’라고 이름 붙은 것들이다. 2002년도 하버드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완통합의학의 종류가 허브이기도 하다.

은행잎, 생강, 마늘, 고려인삼, 당귀 등이 모두 허브로 불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허브들은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장점만을 부각시켜 놓아서 부작용에 대한 경계는 거의 없다.

허브는 천연식품이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게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인 것 같다. 고려인삼이라고 쓰인 팩을 들고 와서 이걸 먹으면 정말 누구나 면역력이 증가되고 힘이 생기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난감하기까지 하다. 한방에서 인삼은 기력이 빠진 사람의 기운을 돋구워주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이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브와 식품보조제들은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판매 약품보다 쉽게 판매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제도 거의 없는 편이다(05.11.10).

송미연 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미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교환교수

서양의학 제3의길 미국 보완통합의학 현황 ② - 마음 다잡아 몸의 병 다스린다

미국 주류사회에서 침술 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완통합의학의 하나로 심신치료(Mind-body therapy)가 있다. 곳곳의 보완통합의학센터에서는 명상을 비롯한 심신치료의 방법들이 많이 도입되어 서양의학적인 치료방법과 함께 사용된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72%가 심신치료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9%는 그에 대한 수련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한 의료진 가운데 61%가 환자들에게 심신치료 과정을 권유해본 적이 있으며, 43%는 본인 스스로 사용해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양의학을 하는 의료진들이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통합 의학적 방법을 환자들에게 권하고 또 본인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함을 보여주는 일례이다. 본인 스스로가 사용하기보다

환자에게 보완통합의학적인 방법의 치료를 권하는 빈도가 높은 점은 흥미롭다.

미 주류사회 명상·복식호흡 등 칼대지 않는 심신치료 활발

치료에 있어 마음이 신체의 미치는 영향에 중요성을 두는 치료과정으로 현재 이곳에서 제공될 예정인 심신치료 과정에는 이완, 이미지 떠올리기(Imagery), 명상, 복식호흡, 스트레스 감소 등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치료과정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힘과 의지, 긍정성, 유머를 배우는 한편 통증이 있을 때 신경계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며 그러한 기능에 마음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다.

심신치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의 종사자들뿐 아니라 암 초기 환자들에 있어서도 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이 감기와 호흡기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켰으며 명상의 과정 동안 촬영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자율신경계와 긍정적인 감정상태를 조절하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 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심신치료의학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스트레스의 감소를 위한 소극적 접근이 아닌 만성질환의 통합의학적인 접근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05.11.03). 송미연 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환교수

서양의학 제3의 길 ① 미국 보완통합의학 현황 침술 - ‘동양의 신비’ 넘어 생활 속의 클리닉으로

필자가 교환교수로 일하고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은 최근 암 센터 안에 침술클리닉 (Acupuncture Clinic)을 개설했다. 미국의 우수 대학병원들이 수년 전부터 침술을 비롯한 많은 동양의 치료방법들을 환자 치료에 도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적 늦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은 15년간 미국 의료기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의료기관으로 그 자부심만큼이나 새로운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 보수적인 편이고 다른 곳에 비해 서는 보완통합의학의 도입이 늦은 편이다.

대부분의 미 의과대학의 보완통합의학센터에서는 이미 중국의 중의학이 자리 잡고 있고 중국인들에 의해 침술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미 최고의 의료기관인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보완통합의학센터가 경희대 한의과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침술과

한의학 분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며 공동연구를 시행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 침술클리닉을 개설하면서 연 설명회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관심을 보여, 예전에 그들이 침술에 대해 갖고 있던 막연한 신비감보다는 하나의 치료수단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보편화 되어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와 닿았다.

침술은 이제 미국인들에게 낯선 용어가 아니다. 최근 존스홉킨스 대학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침술에 대해서는 90%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7%는 더 알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국에서 2002년 국가 차원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자료에 의하면 대략 8200만 명이 지금까지 침술을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약 2100만 명이 침술을 이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침술치료의 임상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매릴랜드대학의 대체통합의학센터를 중심으로 요통과 관절염 분야의 침술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05.10.27). 경희의료원 한방재활의학과 송미연 교수

3. 인터뷰 기사 분석

인터뷰는 신문의 속성상 비판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아 우호적인 기사일 수밖에 없지만 기사를 따라 읽으면서 대체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했나 살펴보기 위해 포함했다. 경향신문 1건, 조선일보 5건, 한겨레신문 3건이 있다.

<표 9> 인터뷰기사 목록

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민중의술 전도 앞장- 울산지법 황종국 부장판사 (06.03.13)		*미 애리조나연구소 통합 의료 연구 소장 앤드류와일박사 (07.05.30) *심신의학 선구자 장현갑교수 (07.05.22) *자기 암과 싸우는 사람들-한만청 전서 울대병원장() *WHO전통의학자문 관 최승훈박사 (04.08.30) *정혜경 영산대교수- 기, 대체의학으로 발전시켜야 (01.07.09)	*한겨레가 만난 사 람. 대체의학 연구 서둘러야-전세일 포 천중문의대대체의학 대학원장 (07.10.23) *만다라미술치료 권 위자 수전편치 (07.05.25) *건강5정법-전세일 포천중문의대대체의 학대학원장 (07.04.05)

a. 경향신문

의사가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라는 책을 내고 병을 잘 고치는 재야 의
료시술인들을 방면해 화제가 된 황종국 판사를 인터뷰했다.

민중의술 전도 앞장 울산지법 황종국 부장판사

울산지법의 황종국 부장판사(53). 민중의술과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한 직업을 가진 황판사는 이런 사라짐을 누구보다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본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안타까움을 속으로만 채우지 않고 판결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은 이 땅의 민중의술에 비수를 들이댔습니다. ‘의료’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습니까. 그런데 사람 살리는 일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장벽을 쳐놓는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는 민중의술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한 주범으로 불법이라는 ‘주홍글씨’를 이마에 찍어버린 의료법을 지목했다.

의료법 25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이것은 무엇인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목해 놓은 것에 다른 아니다. 그는 이를 ‘의사(한의사 포함)에 의한 의료행위 독점제도’라고 정의했다.

황판사가 이렇게 민중의술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 이유는 간단하다. 스스로 효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 직장 동료, 이웃, 친구, 가족들이 실제로 난치병을 간단하면서도 값싼 방법으로 완치되는 것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늦었지만 민중의술이 국민 속으로 당당하게 다가서게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음지에 갇혀있던 이 땅의 신의와 명의들이 햇볕 속에서 민족의술의 당당함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다. 바로 민중의술 살리기 전국연합의 결성이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죠. 하지만 지금 가히 폭발적인 힘을 느낍니다. 또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수천 년 내려온, 그것도 가장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민중의술을 그동안 내팽개쳤던 부끄러움을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된 것일까요.”

이미 영남지방을 필두로 서울·경기, 대구·경북지부가 결성됐고 3월 안에 광주·전남, 전북지부가 결성될 예정이다. 또 강원, 충청지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4월 중에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민중의술’의 힘찬 깃발을 매달아 올릴 계획이다.

“가장 큰 일은 물론 합법화를 위한 싸움이지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민중의술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대(代)를 이어가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의료정책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운동과 더불어 국회, 청와대 등에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주도록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06.03.13).

b.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는 5건이다. 통합의학 권위자 닥터 와일, 우리나라 심신의학 선구자 장현갑 교수, WHO 전통의학 자문관 최승훈박사, 신경림 이대 간호학과교수, 기정혜경 영산대 교수. 다만 암전문의사로 간암에 걸린 한만청 전서울대병원장 인터뷰에서 기자가 “대체의학이나 보완요법에 의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항암치료가 끝나자 친지들이 백두산 녹용이다 뭐다 오만 것을 다 가져왔으나 하나도 먹지 않았다”며 “그런 영양제나 식품에는 보존제, 가공제, 염색 물질, 고정제 등이 있고 그런 것은 간에 해롭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보완요법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암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현대의학만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암전문의사로 살아온 그의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미국 애리조나 연구소 통합의료연구소장 앤드류 와일 박사

“자신에게 꽃을 선물할 것, 하루 5분간 심호흡 할 것, 일주일에 하루는 미술관 관람을, 애완동물을 반드시 키울 것, 집안에 작은 정원을 만들어 신선한 야채를 재배해 먹을 것, 일주일에 하루는 뉴스를 피할 것, 비타민 C 섭취, 하루에 마늘 세 쪽 정도 먹을 것.”

‘닥터 와일(Weil)’. 대체의학보다 더 진화한 개념의 ‘통합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그의 인기는 대단해서, 그가 쓴 ‘건강하게 나이 먹기(Healthy Aging)’은 뉴욕타임스 베스트 1위로 꼽혔고, ‘자연 치유(Spontaneous Healing·정신세계사)’ 역시 각종 DVD로 제작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최근엔 ‘닥터 와일 차(tea)’를 미국 시장에 내 놓으며 탄산음료에 반기를 들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출신으로 현재 미 애리조나 대학 통합의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도 증진시키기 위해 브로콜리와 마늘, 인삼, 비타민C 알약, 카레 등을 꾸준히 먹어 주는 게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키우는데 좋다. 조선일보 DB

◆의사와 환자와의 돈독한 신뢰는 인간의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

그는 노화연구가이자, 통합의학자. 통합의학은 대체의학의 발전된 형태로 인간의

자연 치유 능력을 높이 평가, 연구하는 분야다. 환자에게 간단한 병력(病歷)만 묻고 답하는 게 아니라, 생활 방식, 인간관계, 취미, 식습관과 운동, 성생활 등등 다양한 것을 물어봄으로써 그의 내·외적 문제점을 심층 탐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에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0% 정도가 통합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것이 나의 관심”이라고 설명했다.

◆고단백질 식사는 ‘자연 치유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그가 강조하는 제 1단계는 역시 건강한 식단. 고기 섭취를 줄이고, 생선이나 콩 단백질로 대체하기를 당부했다. 단백질 분자는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화와 신진 대사를 위해서는 단수화물이나 지방의 경우보다 더 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때문에 고단백 식사를 계속하게 되면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는 “단백질은 하루 한 끼, 60g 정도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치의 효과도 높이 평가했다. “진 김치를 집에서 직접 담가먹습니다. 물론 소금을 약간 줄여 덜 짜게 먹긴 하지만, 그보다는 발효 식품이 갖는 효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김치 먹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땐 몸과 함께 정신도 운동하게 하라

그는 몇 년 전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안티 에이징(노화 방지)’ 개념에 의문을 표했다. 노화방지가 나쁠 것 없지만, 성형수술이나 약품 등을 이용해 ‘노화를 멈춘다’. ‘노화에 역행해 젊음을 가꾼다’는 개념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일부러 역행하려고 한다면 정신과 신체는 결국 서로 엇나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노화를 늦추는 게 나중에 신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땐, 몸과 머리가 함께 움직이게 하라는 것도 그의 주문.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몸이 늙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정신과 몸이 함께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걸으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집안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면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 것도 좋죠.”(07.05.30)

우리나라 심신의학 선구자 장현갑 영남대 교수

우리나라 심신(心身)의학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는 영남대 장현갑(張鉉甲·65·심리학·사진) 교수가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의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영구 헌정됐다.

1960년대 중반 생리심리학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장 교수는 70년대에 들어 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생쥐실험을 통해 격리성장과 행동장애의 연관성을 밝혀내 당시에는 생소했던 ‘소의’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석을 제시했었고, 80년대 중반부터는 명상과 의학의 접목을 시도한 ‘통합의학’에 주목, ‘몸의 병을 고치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삶의 질을 높이는 이완명상법’ 등 국내 최초의 통합의학서 5권을 발간하기도 했다 (07.05 .22).

자기 癌과 싸우는 의사들 한만청 전(前)서울대병원장

- “대체요법 등 쓸데없는 藥 먹지 말라”

한만청(韓萬靑·71) 전(前) 서울대병원장은 1998년 간암으로 오른쪽 간 거의 전부를 암과 함께 잘라내는 대(大) 수술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던 암과의 싸움은 간암이 폐로 전이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말기 암을 이겨냈다. 그의 암 투병기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돼라’는 책은 암환자들의 필독서가 됐다.

◆어떻게 치료 전략을 짰나

그의 암 투병 전략은 치밀했다. 우선 감투나 명성보다는 최신 의학지식과 기술에 통달한 의사를 찾았다. 암 수술은 누구, 항암 치료는 누구, 이런 식으로 병원을 불문하고 그 분야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다녔다.

그는 “암 치료 의사는 다양한 최신 치료법을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의사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즉 의사가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환자의 이익을 위해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료 등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환자를 적시에 보내는 ‘열린 의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암 전문가의 간암 투병 생활은 어땠을까. 그는 “의사를 고른 후에는 전적으로 의사를 믿었다”며 “병세나 치료 과정에 대해 담당의사가 말하기 전에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암 투병 자세는

한 원장은 나올 수 있다는 본인의 의지가 ‘암이라는 친구’를 자기 몸에서 떠나보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주변에서 기도를 해주면 그럴수록 그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 종교도 갖지 않았다”며 “암 투병은 의지의 싸움인데 우선은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항암제로 토하고 실신을 할 때도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꺼내 읽었다고 한다. 재발하는 암의 공포를

그는 상어와 싸우는 소설 속의 노인의 투지로 극복한 것이다.

대체의학이나 보완요법에 의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항암치료가 끝나자 친지들이 백두산 녹용이다 뭐다 오만 것을 다 가져왔으나 하나도 먹지 않았다”며 “그런 영양제나 식품에는 보존제, 가공제, 염색 물질, 고정제 등이 있고 그런 것은 간에 해롭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보완요법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암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현대의학만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암 투병을 하고 나서 보니

그는 “그전까지는 내가 가족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는데 병을 앓고 보니 가족들이 나를 보호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이 바빠 가정적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의 세 딸과 아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번갈아 가며 그의 병실을 지켰다고 한다. 그는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 사람일수록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며 “항상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먹고 운동은 분수에 맞는 것을 하며 쓸데없는 약을 먹지 말라”고 말했다.

c.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은 3건의 인터뷰기사가 있다.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 대학원장이 2건, ‘만다라 미술치료’ 세계적 권위자 수전 핀처를 인터뷰했다. 전세일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잘 발달한 한국 대체의학의 미래 비전과 미술치료의 한 영역인 ‘만다라 미술치료에 대해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보완통합의학’ 권위자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장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2007 보완통합의학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전남도는 전남을 보완통합의학의 중심지로 키우려는 생각으로 행사를 챙겼다.

개막식날 이번 행사의 자문위원장 역할을 한 전세일(72)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장을 만났다.

자신이 개발한 건강법으로 나이보다 10년 이상 젊어보이는 전 원장은 ‘투병’중이었다. 감기, 여느 의사들은 만병의 근원으로 여기지만 그는 “몸의 정화작용으로 가끔 걸려야 건강하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우리나라 의사와 한의사의 실력은 세계 정상급”이라며 “서양의학과 한의학에다 다양하게 전해오는 전통 민간요법과 된장·김치와 같은

전통 건강음식을 연구해 이를 치료에 접목시키면 우리 의학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 서구 의학계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의사들의 연구가 활발하며 정부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 효능이 입증된 치료법은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립보건원 안에 국립보완대체의학을 뒤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120여개 의과대학 가운데 100여 곳에서 보완대체의학을 정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달리 우리나라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사이의 벽이 높고 의료인들은 보완대체의학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폄하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나쁜 점도 있지만 양방과 한방 사이의 치열한 경쟁과 견제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학이 더 발전하려면 앞으로 양방과 한방의 두 날개를 모두 써야 합니다. 그래야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래되는 민간요법과 전통음식까지 접목하면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한의원에서 벌침을 쓰고,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모두 카이로프랙틱이나 미술치료 등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의학이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보완통합의학도 결국은 발병 뒤의 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가 아닌가요? 이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하신 것으로 압니다.

“평균 수명이 느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은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이기 때문에 건강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으로 올바른 건강법을 알리고 특히 학교에서 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식사, 운동, 수면, 호흡, 마음 등 다섯 가지를 올바르게 유지하면 건강해짐을 알고 이를 건강오정법이라 이름지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07.10.23)

‘만다라 미술치료’ 세계적 권위자 수전 편치

만다라 미술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수전 편치(66)는 23일 열린 대한임상미술치료학회의 ‘만다라를 통한 미술 치료’ 워크숍에서 “만다라 미술치료는 환자의 무의식을 끌어내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만다라는 원·중심이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로, 만다라 미술치료는 원을 그린 후 그 안에 환자가 손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이뤄

진다.

“만다라에 그린 상징, 문양, 색깔 등을 통해 그 사람의 무의식에 가려져 있던 심리, 불안 등 정신적 상태가 드러나고,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까지 반영됩니다. 상담자들이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환자들이 자신들이 그린 만다라를 스스로 해석하게 하면서, 말로 하기 어려웠던 내면심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만다라는 상담자나 전문도구가 없이도 혼자 그리면서 할 수 있어, “환자 스스로 치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한국을 처음으로 찾은 그는 아시아의 상징체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만다라를 그릴 때 동양인들이 서양인들과 달리 적, 황, 청, 백, 흑의 색 배합을 즐겨하는 것처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다라 미술치료에서는 한국적 상징이 발현될 수 있어요.” 그는 24일 방문한 고궁과 박물관·경주의 느낌을 현재 집필 중인 6번째 만다라 워크북에 반영할 생각이다(07.05.25).

호울원 운동 펴는 전세일 원장

의세일관(醫世一貫).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전세일(71) 원장의 사무실에 걸린 액자다. 그의 이름자가 든 이 말은 의술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꿰다는 뜻이다.

적어도 의학 분야에서 전 원장은 ‘일관’을 한 듯하다. 그는 의사이자 침구사다. 동서양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아우르는 통합의학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퇴계 이황의 활인심방처럼 그는 자신이 만든 ‘건강5정법’으로 40대의 모습으로 산다.

- ‘내 몸 안의 신’에 주목... 지구촌에 참건강 선물 꿈

그는 생명의 근원인 ‘내 몸 안의 신’을 이야기한다. 신이 미치는 범위는 사랑이 닿는 데까지이며 자신의 이름처럼 세계는 사랑 안에서 하나라고 믿는 전 원장. 어린 시절 선친으로부터 늘 남을 도우며 살라는 말을 들었고, 젊은 시절 슈바이처의 생명경의 사상에 감동받아 가난한 지구촌 이웃에게 인술을 펴고 있는 그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사람들에게 참건강을 선물하는 것이다.

- 현대의학은 15%의 환자 치료에만 주력

전세일 원장은 오랜 세월 환자를 치료하면서 동서양 의학 모두에서 한계를 봤다. 현대 의학은 치료에 쏟는 관심과 달리 건강 유지라는 점에는 소홀했다.

-불건강이나 미병 상태에 있는 사람 연구 필요

하지만 그의 눈에 현대 의학은 병의 치료에만 관심이 있었다. 불건강이나 미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현대 의학 특히 서양 의학에서는 이를 잡아내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그가 통합의학에 관심을 가진 이유다.

“지금까지 의학은 병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료에서 건강으로 화두를 바꿔야 합니다. 의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전 원장은 참건강을 전하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전 원장이 말하는 참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은 물론, 사회적, 영적인 건강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다.

“참건강을 유지 하는데 는 의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사, 치료사, 성직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병을 경험했던 환자들까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호울원(Wholeone)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 원장은 한국 의료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그에게 “한국의 서양의학과 동양 의학 수준은 세계 최고”다. 여기에 보완대체의학까지 집목하면 한국의 의술은 인류에게 참건강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이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동서의학연구소를 만들었고, 의대에 한의학 개론을 개설했다.

“우리나라에 한사상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웬지 세계의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 널리 퍼졌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의술도 마찬가지구요. (07.04.05)

C. 내용에 따른 분석

4개 신문의 보완대체통합의학에 대한 기사를 주제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연구자는 언론이 대체의학에 대해 문제삼는 주제를 크게 효능과 누가 할거냐, 즉 주체의 자격조건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어떤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대체의학 전문의사, 대체의학 전문한의사를 통해 대체의학에 대한 개념과 외국의 사례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번 주제에 따른 분석에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주대상이 되었다.

1. 효능

효능 면에서 동아일보는 “현대의학을 보완하기 위한 것” “만능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표준화되지 못했다”등으로 효능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

a. 동아일보

-이성재 고려대 의대 통합의학교실 교수는 “569개 약효 중 481개가 C등급을 받은 것은 이들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논문이 부족하거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한의학적인 대체의학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다.

-대한보완대체의학회 이성재(가천의대 길병원 교수) 이사장은 “보완대체의학이 현대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금물이다”며 “정통 현대의학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 이병욱 서울 강남 차병원 암대체요법클리닉 교수는 원래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였다. 보완대체의학으로 암을 고치는 ‘명의’로 소문나 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보완대체의학이 만능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

- 이성재 이사장은 “이제 개별 치료법에 대해서도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요법이나 한의학으로부터 유래된 각종 대체의학은 검증이 쉽지 않다.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전세일 원장은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 작업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대체의학만 환자 치료에 이용된다. 기준은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얼마나 많은가’다. 현재까지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가장 많은 분야는 건강기능식품과 치료보조제다.

- 현재 정통의학에서 비만 치료에 쓰이는 메조세리피, 주름 제거에 쓰이는 보톡스, 통증 치료에 쓰이는 ‘근육 내 자극치료(IMS)’ 역시 처음에는 대체의학으로 시작됐다. 대체의학도 나중에 ‘근거’와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정식 의학 분야로 흡수된다는 것이다.

- 국내에서 대체의학으로 불리는 치료법은 70여 종. 자연의학, 민간의학, 전통의학 등으로 불리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대체의학 시장규모를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대체의학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뜨겁

다. 과학적 근거가 없어 치료 효과는 주로 환자의 입소문으로 떠돌고, 그런 만큼 효능 효과가 과장되기 쉽다.

- 대한보완대체의학회 이성재(李星宰) 이사장은 “외국에선 연구 결과가 축적돼 어느 정도 검증됐다는 판단이 들기 전에는 선불리 환자 치료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가천의대 길병원 통합의료센터 이성재 교수는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환은 제외되고 완치를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 서울대 의대는 내년부터 대체요법 소개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에서 간간이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체의학이 소개됐을 뿐이며 대부분의 국내 의사들은 한의학 등 여러 보완대체요법을 비과학으로 생각했다.

- 일반인에게는 보완대체요법이 각종 비만치료제나 면역증강제 등으로 포장돼 잘 못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보완대체요법과 관련된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 가천의대 길병원 통합의료센터 이성재 교수(한국 대체의학회 이사)는 “이번에 소개되는 보완대체요법은 지난 수십 년간 전문 의료인에 의해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 된 유럽의 보완대체의학을 소개한다며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조선일보

- 대체의학요법의 두 얼굴=어떤 암 환자는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만 탕진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우선은 효능을 입증할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확률적 오차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가 의학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효능 판정에 오류가 생긴다. 중간에 효과를 못보고 탈락하는 환자는 전체 샘플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하나의 특이한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고 일반화 된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다.

인삼 등 면역력 증강 목적으로 먹는 식품들도 복용 기간과 복용량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대체의학요법은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 침술의 효능은 다른 어느 대체요법보다 연구가 활발한데, 침이 만성 통증을 줄여주고 항암치료의 메스꺼움을 줄인다는 연구가 나온다. 그 외에도 방사선치료 후에 생긴 구강건조증이 침으로 회복됐다는 논문도 나왔다.

- “세계적으로 사용 중인 대체요법에는 200여 가지가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수련이다. 기수련은 건강기공과 치료기공이 있다. 치료기공은 의학이나 한의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하고 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기수련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더없이 좋은 대체의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 대체의료 주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전문가의 도움, 여기서 전문가란 대체의료의사를 말한다. 의대 교과과정에 포함해 치료에 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a. 동아일보

- 대체의학 전문가들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사이비 시술과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한다. 한 대학교수는 “잘못된 대체의학 시술을 받고 뒤늦게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가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오홍근 교수(한국아로마테라피협회장)는 “당뇨병 심장병 등 내부 장기에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향기요법을 사용하며 노약자나 임신부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미국의 하버드대, 스탠퍼드 주립대,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등에서 전문의가 직접 치료한다. 국내에선 신경정신과에서 심신의학이 활용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보완대체요법이 교과과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개원한 의사의 80%는 실제 환자 치료에 이를 응용한다. 미국은 현재 하버드대, 애리조나 주립대 등 80여 개의 의대에서 보건의대체의학 교과과정으로 동종요법 침술 심신의학 자연치료법 등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일부 클리닉에선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

되고 있다.

- 자연치료법과 한방의 다른 점은?

한약재와 비슷할 수 있으나 한약은 여러 성분이 혼합된 것이지만 자연치료약물은 단일 성분으로 돼 있다. 또 환자의 진단과 치료는 현대 서양의학을 공부한 전문의가 담당한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환자는 약국에서 구입해 복용한다. 또 자연식물약품은 유럽과학협력위원회(ESCOP)의 엄격한 심사 규정을 통과해 안정성과 효능이 인정된 것이다.

가천의대 길병원 통합의료센터 이성재 교수(한국 대체의학회 이사)는 “이번에 소개되는 보완대체요법은 지난 수십 년간 전문 의료인에 의해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 된 유럽의 보완대체의학을 소개한다”며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환자가 동종요법 클리닉에 처음 방문하면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받아 적는 등의 면담을 1시간30분~2시간 정도 갖는다. 환자의 다양한 성격을 의사가 판단해 이에 따라 진단과 처방을 한다.

- 가천의대 길병원 통합의료센터 이성재 교수(한국 대체의학회 이사)는 “이번에 소개되는 보완대체요법은 지난 수십 년간 전문 의료인에 의해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 된 유럽의 보완대체의학을 소개한다”며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조선일보

- 5년 이상 살아남는 암 환자는 10명 중 4명. 이들은 대개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 등 현대 의학의 수혜자다. 나머지 6명은 호스피스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의사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한다”며 병원 밖으로 눈을 돌린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먹어서 암을 완치하는 비법’이다. 현대 의학의 암 치료를 대신하겠다면, 대체의학이란 이름을 단 마케팅을 펼치며 암 환자들의 약점을 파고든다.

- 보완·대체 요법이 모두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보완·대체 의학(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이란 이름으로 환자들

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보험적용도 된다. 그러나 암 센터 등과 같은 공식 의료 기관에서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시도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이다. 또 이런 모든 과정은 의사들이 주도한다. 우리나라의 보완·대체 요법은 대부분 건강식품 위주이지만, 외국에서는 명상, 미술·음악치료, 요가·기공, 식물성 약제 사용 등 다양하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 보완요법의 필요성은 의사들도 인정한다. 다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요법을 환자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그 결정 권한을 의료진이 가져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 때문에 보완·대체 요법에 대한 결정을 환자 등 비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지 말고 의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최한 ‘암-보완통합의학이 할 수 있는 것은?’이란 심포지엄도 이런 맥락에서 마련됐다. 고려대의대 통합의학교실 이성재교수는 “보완요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의사”라며 “보완·대체 요법과 관련, 의사에 대한 교육부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치료법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관할 기구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가정 의학 전문의로 3기 직장암을 이겨낸 암환자협회 최선규 회장은 “의사와 상의해 암 발병 초기부터 인체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보완요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말기 상태에서 터무니없이 값 비싼 보완 요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대체의학이나 보완요법에 의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항암치료가 끝나자 친지들이 백두산 녹용이다 뭐다 오만 것을 다 가져왔으나 하나도 먹지 않았다”며 “그런 영양제나 식품에는 보존제, 가공제, 염색 물질, 고정제 등이 있고 그런 것은 간에 해롭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보완요법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암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아니며 현대의학만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대체요법 전문가들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측은, 그러나 의사들이 서양 의학적 관점만으로 일방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CAM 실무위원회 간사인 조수현 서울의대 교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대체요법이나 기능성 식품의 효과와 안전성 여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 대학원 전세일 원장(전 연세의대 재활병원장)은, 그러나 “대체의학은 원래 현대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어려운 분야”라며 “현대의학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효과까지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그러나 병원 치료를 마다하고 이런 ‘명약’과 ‘비방’에 매달리다가 시간과 돈 낭비는 물론,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개 병원 치료가 6개월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환자들이 동요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며 “특히 주위 사람들이 이것저것 좋다고 검증되지도 않은 것들을 권하면 환자들은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된다”고 했다.

- 서울아산병원 류마티스 내과 유빈교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후 2년이 지나면 관절 연골이 파괴되는 등 관절변형이 진행되므로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이미 변형된 관절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어려우니 반드시 병원에서 먼저 진단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고광철교수는 “어떤 식품이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그렇게 효과가 좋은 식품이 있다면 진작 약으로 개발됐지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생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 교수는 “민간요법의 폐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혹은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유효성분은 없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대체의학요법의 두 얼굴=어떤 암 환자는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만 탕진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우선은 효능을 입증할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확률적 오차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시도가 의학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효능 판정에 오류가 생긴다. 중간에 효과를 못보고 탈락하는 환자는 전체 샘플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하나의 특이한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타고 일반화 된 경우도 많다는 분석이

다.

인삼 등 면역력 증강 목적으로 먹는 식품들도 복용 기간과 복용량에 따라 효과·부작용이 천차만별이다. 그만큼 대체의학요법은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 전미선 교수는 “대체의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요법마다 효과가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다”며 “대체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환자의 병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말했다.

- 기수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식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보급되는 경우 무자격자들에 의해 부작용이 빚어질 수 있다. 또 중국과 같이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지도자 자격심사, 내용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 등으로 대체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V. 고찰

경향신문은 스트레이트 1건, 기획 35건, 인터뷰 1건 등 총 37건, 동아일보는 스트레이트 9건, 기획 9건 등 총 18건, 조선일보 스트레이트 12건, 기획 8건, 인터뷰 5건 등 25건, 한겨레신문 스트레이트 11건, 기획 6건, 인터뷰 3건 등 총 20건을 내용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총 37건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기획기사는 대체의학 전문가가 35회 동안 대체의학의 각 유형을 알기 쉽게 약 1200자 정도로 기사화했다. 대체의학의 종류는 알 수 있었으나 체험사례 등은 없는데다 소개된 내용도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 위주였다. 개념과 유형 파악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전문가 의견이 빠져 있어 독자들이 그 내용의 허실을 파악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동아일보는 스트레이트 8건, 기획기사 9건 등 18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쟁점은 건강식품의 효용성과 대체의료 이용에 관한 기사로 집약된다. “대한의사협회·대한학회, 건강식품 성분 569개중 의학적 약효 인정 88개뿐” 기사와 “건강기능식품 치료효과 논란-의학단체 대부분 근거 불충분” 기사가 눈에 띈다. 건강식품·대체요법 관련 기사는 이해관계에 따라 한 쪽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기사들이어서 매우 중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대에서 ‘한의학과 보완의학’이라는 강의를 선보인다”는 기사는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주는 기사여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 “대체의학 열풍”이라는 다소 호의적인 제목의 기사를 따라 읽다보면 대체의학의 종류와 매니아 계층을 통해 대체의학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 대체의학의 개념과 현대의료의 흐름, 국내 시장규모, 외국의 경험을 소개하면서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과장위험에 대해 빼놓지 않고 있다. 이어 대체의학 전문가들의 말씀을 빌려 조심스럽게 검증된 요법을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기획기사는 총 9건 보도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담을 내용을 다 담았다. 2007년 봉침·해독요법·음악치료, 2005년 “‘제3의 의술’ 대체의학을 해부한다” 3회,

2002년 보완대체요법 上下 2회 등 걸쳐 대체의학에 관한 개념, 유형, 이용 현황 등을 보도했다. 2002년 동중요법에 대해 기사화해 ‘대체의학의 보도영역이 넓어졌다. 대체의학이 만성질환치료에 탁월하다면서 우울증, 당뇨, 아토피, 고혈압, 만성피로, 향기치료, 침술, 카이로프랙틱을 소개했다. 또 암 치료 대체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대의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다스려 면역력을 키워 암을 다스리는 보완치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체의학이나 사이비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기사화했다.

이외에 2002년 “보완대체요법 상·하”에서는 동중요법, 향기치료, 심신의학, 자장치료, 자연치료, 물 치료 등에 대해서도 기사화했다. 개념에서부터 이용현황, 외국의 이용실태, 한계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침술 등 대체의학 미국대중에게 인기”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들 명상수련”이라는 기사는 대체의학에 대한 일반인의 선입관 형성에 영향을 주고 대체의학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동아일보는 ‘대체의학의 현재’를 가늠하게 해주는 기사를 선보여 수용자가 대체의학에 대해 좋은 선입관을 갖고 대체의학의 활용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스트레이트 기사 12건과 기획기사 8건, 인터뷰 5건 등 총 25건을 실었다. 전남도의 보완대체의학 육성 사업에 대한 기사는 대체의학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좋은 기사로 보인다. 다만 지역판에만 보도돼 전국적으로 보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보완요법·건강식품 효과 논란’ 기사에서 양쪽 권위자의 말씀을 인용해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외에 서울대 의대 한의학 관련 강좌 개설, 장애인 예술치료 페스티벌 등 기사가 돋보였다.

조선일보의 기획기사는 8건이지만 암 치료 대체요법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미국과 멕시코의 대체의학 현장취재기를 실고 있다. 2007년 3월 21일자에 “암, 보완대체요법 이대로 좋은가”를 한 면 전체를 털어 기사를 실었다. 암 치료 중 치료를 중단하고 상황버섯을 먹어 결국 죽어버린 환자에 대한 기사로 의사와 상의 없이 또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맹신하지 말라는 내용과 ‘값

비싼 건강식품 피하라“ 부제가 붙은 기사에서는 환자의 심리를 이용해 턱없이 비싼 건강식품에 기대지 마라는 내용이다. 균형감을 유지하며 객관성을 보이려 했으나, 대체의학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하는 제목이었다. 또 2003년 “암, 이렇게 이긴다” 기사도 부제가 “대체의학의 두 얼굴”이어서 제목이 선정적이다.

미국 멕시코의 대체의학 현장취재기 첫 번째는 “불치병 완치...‘기적’인가 ‘사기’인가”라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전달되고, 두 번째는 “‘동양의 기’ 21세기 생명공학의 핵”이어서 첫 번째 기사와 두 번째 기사가 극과 극을 오가는 형국이며 독자는 대체 의학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인터뷰 기사는 5건인데 통합의학 권위자 닥터 와일, 우리나라 심신의학 선구자 장현갑 교수, WHO 전통의학 자문관 최승훈 박사, 정혜경 영산대교수. 다만 암전문의사로 간암에 걸린 한만청 전서울대병원장 인터뷰에서 기자가 “대체의학이나 보완요법에 의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항암치료가 끝나자 친지들이 백두산 녹용이다 뭐다 오만 것을 다 가져왔으나 하나도 먹지 않았다”며 “그런 영양제나 식품에는 보존제, 가공제, 염색 물질, 고정제 등이 있고 그런 것은 간에 해롭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보완요법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암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아니며 현대의학만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런 멘트 한마디가 독자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스트레이트 11건, 기획 6건, 인터뷰 3건 등 총 20건의 기사를 보도했다. 상대적으로 기사의 다양성이 있고, 행사 단신이나 책 소개, 방송예고를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방송예고 기사 중 동종요법, 침술프로그램은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치고 기사화했다는 점에서 기사선택 과정에 대체의학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서양의학 제3의 길 미국 보완통합의학 현황”을 4회에 걸쳐 실고 있다. 정리되지 않은 국내의 현황보다는 보완대체의학의 메카가 되어가는 미국의 현황을 기사화함으로써 대체의학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 듯 보인다. 이 기사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보완통합의학센터 한방재활의학과 송미연 교수를 통해 기사화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찬반이 분분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미국의 현황을 통해 의학계의 흐름을 알게 해준 의미 있는 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현황이나 한국적 대체의학의 비전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회 “침술-동양의 신비 넘어 생활 속의 클리닉으로”, 2회 “마음 다짐이 아픔의 병 다스린 다”, 3회 “생강 인삼도 허브 분류-일반인들 묻지 마 복용”, 4회 “기찬 수기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외에 관련기사로 보완통합 의학의 개념, 존스홉킨스 대학병원 암 센터의 침술클리닉, 미 주류 사회의 명상 복식호흡 등 갈대지 않는 심신치료 활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침술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수기치료에 대해 독립 박스 기사로 처리해 보도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국내 수준은 미미하지만 대체의학의 미래는 분명 있는 것 같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외에 음악 미술치료에 대한 기사가 있다.

한겨레신문은 3건의 인터뷰기사가 있다.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 대학원장이 2건, ‘만다라 미술치료’ 권위자 수전 핀처를 인터뷰했다. 전세일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잘 발달한 한국 대체의학의 미래 비전을 말하고, 미술치료의 한 영역인 ‘만다라 미술치료’에 대해 인지하는 계기가 됐다.

4개 신문의 보완대체통합의학에 대한 기사를 주제에 따라 분석해보면 크게 효능·검증의 문제와 누가 시술 할 것인가?, 즉 주체의 문제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어떤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대체의학 전문의사, 대체의학 전문한의사를 통해 대체의학에 대한 개념과 외국의 사례를 전달하고 있어 제도권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고 보인다. 효능 면에서도 두 신문은 구체적으로 기사화하지 않음으로써 애매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효능과 검증 면에서 동아일보는 “현대의학을 보완하기 위한 것” “만능 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표준화되지 못했다” 등으로 효능과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발표 기사에서 건강식품 업계나 대체의학계의 교수들의 멘트를 통해 양쪽의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저널리즘의 정신을 반영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균형감과 함께 조심성이 엿보였다. 대체요법

이용 면에서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의 중요성을 통해 제도권 내의 의료인에 의한 대체요법의 정립과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한국의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 태도의 중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대체의학에 관한 보도가 2004, 2005년에 기획기사로 연재된 것은 그 연간에 드라마 “허준”이 한의학 민간의학 등 전승의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은 데다, 2003년 “대장금”에서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의식동원(醫食同源), 즉 음식에 치료의 개념이 더해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대장금은 특히 음식과 약품을 통한 자연치유에 중심을 뒀, 두 드라마이후 전승의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게 확장된 결과일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A. 결론

언론이 대체의학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대체의학의 일반화와 정립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언론은 우리의 자화상을 토대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조선일보는 2000년 3월에, 동아일보는 2002년 1월에 헬스섹션을 도입해 건강과 관련한 기사를 실을 수 있는 지면이 대폭 늘어났는데도 보완·대체·통합의학에 관한 기사는 매우 적었다. 따라서 기사의 다양성이 없고 보완·대체·통합의학에 관한 논조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경향·동아·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등 이들 4개 신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대체·통합의학으로 검색된 기사를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했다. 경향신문 37건, 동아일보 18건, 조선일보 25건, 한겨레신문 20건으로 총 100 건의 기사를 3가지 기사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목마다의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고찰했다.

- 1) 한국 신문은 대체의학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2) 대체의학에 관한 기사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
- 3) 대체의학에 대한 한국 신문의 보도태도는 어떠한가?

분석 결과 4개 신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보완·대체·통합의학에 대한 기사의 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체의학이 주요의 제화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비주류의 의학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고 못

미더운 시선으로 다루고 있었다.

1-1) 우리 신문은 대체의학을 현대의학의 대체가 아닌 보완으로서 의사 또는 전문가의 지시를 받아 이용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분야에 대해 미래의학으로서 통합의학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검증된 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대체의학에 관한 기사는 유형 소개와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도하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다. 특히 동아일보가 대체의학의 개념과 유형, 의료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료인, 외국사례, 재야요법사 등을 실어 기사의 다양성, 적절성 면에서 우리나라 대체의학의 현실을 잘 보도했다는 점에서 적극성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3개 신문은 자사 기자가 아닌 대체의료 전문가에게 지면을 내주거나 외국 현장취재기를 실어 대체의학에 대한 자사의 시각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대체의학의 미래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관심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경향신문은 35회에 걸쳐 대체의학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어 이색적이다.

1-2) 대체의학에 관한 신문의 보도 내용은 대체의학의 유형과 효능, 외국사례 소개에 치우쳐 있었다. 언론사가 미국의 분류법에 따라 소개하고 있고 각종 요법을 의료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사 중심으로 기사를 구성하다 보니 우리 전승의학이 빠진 채 수입된 대체요법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를테면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 위주인데다 대체의학자로 보도된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사이면서 대체요법을 가미한 의료인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어 그들이 외국에서 들여온 요법을 선택적으로 시술할 때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통의 정채요법, 우리나라 전통 꽃과 한약 제를 이용한 향기요법 보다는 카이로프랙틱이나 아로마 요법이 소개되어 그것이 요법을 대표하는 것처럼 기술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의사·한의사·재야요법사 사이에 위치한 대체의학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라는 차원이 아닌 이해관계나 힘의 균형에 따라 대체의학 전공자들의 진로와 규정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원

화된 의료체계 문제와 더불어 대체의학이 현행 의료법 밖에 있음으로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체요법이 병원재원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대체의학의 정립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정비, 전승의학과와의 관계설정, 대체의학 전공자들의 진로와 위상, 한국적 대체의학의 틀 마련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승의학의 전통이 강한 우리가 대체의학 논의에서 배제됨으로써 대체의학의 주도권과 시장을 외국에 선점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전승의학과 결합한 한국대체의학의 정립이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1-3) 우리 신문들은 통합적인 정보의 제공보다 개별 치료법 소개에 치중함으로써 요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체의학에 대한 언론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체의학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의제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대체의학에 대한 국내 일간지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중립적인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문은 당대 현실의 관심을 반영하고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보완·대체·통합의학의 보도태도 연구는 단순 양적 분석보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질적 분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신문이 보완·대체·통합의학에 대해 어떤 신념 즉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과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으로 대체의학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고 다각도에서 보도하는 적극성을 보여 의학에 대한 열린 시각과 함께 우리사회의 건강지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B.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경향·동아·조선·한겨레신문 등 4개 신문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으로 검색한 기사만을 분석하였으므로 편집과정에서 지면 화 되지 않은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쇄된 기사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본 연구는 기사 검색과정에서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으로 검색했기 때문에 기사내용이 대체의학 영역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사 중에 ‘보완’ 또는 ‘대체’ ‘통합’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검색에서 누락될 수 있다.

3) 본 연구는 연구자 1인이 자료수집 및 내용분류 작업을 하였으므로 주관적인 해석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 제언

본 연구에서는 4개 신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다른 신문은 물론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언론이 대체의학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각도의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그리고 대체의학 저널리즘 연구와 효과분석까지 범위가 확대되길 바라며 이러한 연구들이 대체의학의 활성화와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언론의 시각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법의 소개성 보도에서 벗어나 대체요법의 근원적 치료형태와 치료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한계점을 객관적으로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즉 밀려오는 외국의 대체요법이 어떤 방법으로 검증되고 있는지 또한 외국요법과 비슷한 우리전승 요법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사람에게 외국요법이 맞게 시술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살펴볼 다른

시각도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에 대체의학이 신뢰성있는 기사로 인식되고 의학이라는 학문으로 정립되려면 하루빨리 많은 전문교육과정 이수자의 배출이 필요하다. 그 결과 정통성을 갖고 의료증진에 보탬이 되는 또 하나의 의료형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남준(1998). 의료건강보도의 문제점. 저널리즘 비평, 25, 42-47
- 곽순애(2001). 간호교육의 대체-보완요법 교과목 개설 현황조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권혁남(1992). 지면에 나타난 보건기사의 특성과 개선방향. 신문연구, 33(2), 97-108.
- 김공현·김광기(1998). 건강증진용어해설집. 서울: 보건복지부. 23, 63.
- 김영석(2003).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사.
- 김영애(2005). 종합일간지에서 대체의학 관련 기사의 보도경향 분석.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 김우룡(2001). 병원취재와 건강의료 관련보도. 김진홍, 한국저널리즘의 쟁점, 법문사, 494-495.
- 김정선(2000). 이환과정에서 의료자원이용에 관한 연구(대체의료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6,7집, 6-9.
- 김재범, 한종범, 이병관, 박석철, 이종수, 이귀옥(2006). 미디어사회. 인북스. 32, 246-247.
- 김지미(1986).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 내용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박재영(1998). 의료보도 : 최근 의료관련 보도를 보고. 신문과 방송, 331, 69-70.
- 박지동(1999). 언론사회 연구방법. 서울: 나남 출판사. 295-312.
- 박희호(1999). 신문의 보건기사 보도에 관한 내용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안윤옥(1999). 일간지에 게재 보도된 의학, 의료정보의 내용분석. 대한의사협회지, 40(9), 1208-1214.
- 이성은(1994). 주요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 내용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정권(1997). 대체의학 현실과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40(9), 1203-1206.

- 이종문(2004). 의료기관 종사자의 대체의학 이용양상 및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 정규숙(2003). 일간신문의 건강기사 의제분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정낙현(2005). 도시저소득층 노인세대의 대체요법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 조홍준(1999). 의료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훈저널 39(1), 216-219.
- 차배근(1999). 매스커뮤니케이션효과이론. 나남출판사, 302-303.
- 차배근(1996). 사회과학연구방법. 세영사. 375-43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 조사.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128.
- 한국언론재단(2001). 공중보건과 의학보도: 의학보도의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북스. 101-106, 116-120.
- 한국언론정보학회(2000).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한울. 83.
- 허훈(2003). 대체요법의 분류와 한국대체의학의 발전방향. 계간 과학사상 2003 겨울, 123-128.
- 홍수원(2000). 보건과 의료관련 보도의 함정. 신문과 방송. 356. 160-163.
- Wright. W. R.(1975). Mass Media as Sources of Medical Inform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3(25), 171-173.
- Earl R. Babbie(2007). 고성호 김광기 김상욱 문용갑 민수홍 유홍준 이성용 이정환 장준오 정기선 정태인 역. 사회조사방법론 제11판. 그린출판사. 447-465.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대체의학과	학 번	2006862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강 유 은 한문 : 姜 裕 銀 영문 : Yu-Eun Kang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롯데낙천대 110동 1502호				
연락처	Email : kye0306@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국내 일간지에 게재된 '대체의학' 관련 기사 연구				
	영문 : A Study on Alternative Medicine Headlines Appeared in Korean Newspaper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 구축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을 금지함.
3. 배포, 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을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속 대학에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2008년 02월 25일

저작자 : 강 유 은 (인)

조 선 대 학 교 총 장 귀 하